

ISSN 2733-564X

부부가족상담연구

1권 2호 (2020년 10월)

KACFCS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부부가족상담연구

제1권 2호 (2020년 10월)

목 차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최근 연구경향	
이지영 · 천성문	1
□ 구조적 가족치료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1991~2019	
유두리	17
□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김미라 · 하영운	31
□ 중년기 이혼남성의 자기개념 변화에 대한 단일 사례연구	
정영주 · 조미애	53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최근 연구경향

이 지 영* 천 성 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5년-2020년에 발표된 235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extom과 UCINET을 활용하여 단어출현빈도를 분석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반적인 추이 분석을 위한 빈도 분석과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심성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전반적인 추이 분석 결과, 최근 6년 동안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연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방법별 추이는 문헌연구의 경우 점차 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술지 논문에서 질적연구가 학위논문에서 혼합연구가 각각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주제별 추이는 가족 및 부부상담에 대한 주요 개념과 모델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한 문제 상황이나 특수 대상을 주제로 한 연구가 학술지논문을 통해서 다수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키워드 간 평균 연결도와 연결선 간 평균거리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높고 주요 주제 간의 연결성과 맥락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사성 집단을 확인하기 위한 CONCOR 분석 결과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가족치료기법, 부부, 소통과 갈등, 위기 및 극복, 부부 상담 프로그램 등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연구 경향성에 나타난 이와 같은 특징들이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가족 및 부부상담, 연구 동향

* 공동저자 : 이지영(제1저자), 부산 외국어대학교 부교수

** 교신저자 : 천성문,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Tel : 051- 629-5905, E-mail : smcheon@pknu.ac.kr

인간은 가족이라는 유기체 안에서 성장한다. 가족 관계라는 역동적 관계를 통해 성격을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사회화된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지지, 격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성장시킨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성장한 인간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사회인이 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이미옥, 2019). 건강한 가족과 부부에 있어서도 구조, 기능, 관계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 변화와 함께 인구변화, 가족의 형태 변화, 가족의 기능 변화, 가족 내 역할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가족의 부적응과 해체, 부부 갈등 및 가족 갈등 증가 등 가족 및 부부 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문제란 가족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에 관련되는 사회문제와의 관계를 망라한 광범위한 개념과 가족 내의 가족관계적인 개별적 문제를 포함한다(유영주, 김순옥, 김정신, 2013). 최근에는 가족과 관련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취급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 문제를 드러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되어 가고 있다(이선훈, 신영화, 서진환, 2005). 또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에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최지원, 김수지, 2018).

개인과 가족을 역동적인 관점에서 깊숙이 바라볼 수 있고 가족 증상의 원인과 결과 등 전면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김정신, 2016)은 가족과 부부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족 상담은 가족 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문가들이 다양한 가족

치료 모델을 적용하여 서로의 상호작용 변화를 유도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개입(최구련, 2008; 신혜중, 2015)이며, 부부상담은 부부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을 찾아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의 맥락과 패턴을 파악하여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Guman, 2015; 최빛내, 최우정, 최연실, 2018 재인용)으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

가족과 부부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전문적 개입 필요에 대한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학문적 연구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및 부부상담의 학문 영역에서 연구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지, 사회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 및 부부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전문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거나(조성봉, 노미화, 김현수, 2019; 서진환, 2008), 사례발표회에 발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신혜중, 2015) 혹은 특정 주제로 제한(최빛내 외, 2018; 김남연, 양난미, 2012; 박정희, 최연실, 도은숙, 서신화, 안연주, 2007; 정교영, 신희천, 2007)하여 대상을 선정 후 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성봉 등(2019)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비치료연구 총 15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가족 치료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비치료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한 경험적 연구가 문헌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양적 경험적 연구에서는 실태, 현황에 대한 조사, 변인 간 관계 검증, 척도

개발 및 검증이, 질적 경험적 연구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경험,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가족치료 연구 중 비치료 연구 영역에서는 실태 및 현황 파악, 변인 간의 관계 검증, 척도 개발 및 검증 등을 주제로 하는 양적연구와 개인과 가족의 경험,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는 질적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최빛내 등(2018)은 커플치료에 효과적인 임상개입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기초자료 축적에 연구의 의의를 두면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KCI 등재된 커플치료 관련 논문 186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발표추세, 학문영역, 연구주제, 치료이론 및 기법, 연구 방법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커플치료 연구는 1995년을 기점으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주제는 부부의 문제 상황, 의학적 특성, 정신적 요인, 가족주기 관련 요인, 특수 가족문제로 범주화하였고, 주요 치료이론 및 기법에는 통합적 접근, 사티어의 경험적 접근, 보웬의 다세대적 접근, 이마고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혜중(2015)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부가족상담학회의 월례 및 집단 사례발표회에서 발표된 105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부부 및 가족 상담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담 치료 유형은 가족치료이며, 주요 모델로는 다세대적 접근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사정 도구는 가계도임을 밝히고 있다. 김남연 등(2012)은 부부집단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질적 향상,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부부집단 상담프로그램 관련 논문 34편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론적 토대, 주제, 평가,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집단 상담프로그램에 적용된 이론적 토대는 Satir의 이론이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과 갈등대처/해결을 가장 많이 다루었으며, 프로그램 회기 및 운영 소요 시간으로는 6회기 이내(90분)가 가장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서진환(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가족치료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08년까지 게재된 연구논문 157편을 대상으로 치료연구와 비치료연구로 유목화하고 치료연구에 성과연구, 과정연구, 사례연구를 비치료연구에 경험연구와 문헌연구를 각각 하위범주화하여 하위범주별 연구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박정희 등(2007)은 가족치료 연구의 주제별 다양성을 살펴보고 가족치료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2000년부터 2005년에 발표된 총 92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가족치료의 실제, 문제유형별 연구, 가족치료 모델/이론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문제유형별 사례연구나 가족치료 모델/이론 연구들은 많이 연구되는 반면 가족치료의 실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다양한 가족문제 유형과 그에 따른 치료적 개입(효과) 연구,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 가족치료 실제 전반에 관한 연구, 가족치료의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정교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는 부부치료에 있어서의 주요 이론인 행동치료모델, 인지행동치료모델, 정신역동적치료 모델, 가족체계 치료모델의 4개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개관하였다. 이론별로 부부문제의 원인과 평가, 치료자의 역할과 목표, 치료기법,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부부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며 비교연구와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가족 및 부부 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일차적으로 치료연구와 비치료연구로 대별한 후, 하위범주의 분석기준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유형, 연도별 경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동향 분석의 목적은 연구 성과를 점검하여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 속성과 지적 구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변기용, 이석열, 김수홍, 2010). 또한, 학계에는 학문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수립방안을 제시하

고 실무에는 새로운 제도의 개선이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최영출, 박수정, 2011). 학문의 사회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장에 대한 응시와 성찰이 중요하며(Bourdieu, 2004),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유혜림, 민인식, 2018). 학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사전에 일정한 분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분석틀을 이용하여 연구논문을 분류하는 연구 경향 분석(trend analysis), 최근 등장한 데이터 분석기법 중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등이 있다(유혜림, 민인식,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유형, 연도별 경향성 외에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함께 적용하여 기존의 내용분석이나 연구경향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2020년에 발표된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연도별, 자료유형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연구에 나타나는 다양한 개념을 추출하고 특정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방 법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RISS에서 검색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었다.

첫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학술논문 검색기에 ‘가족상담’, ‘부부상담’, ‘가족및부부상담’, ‘가족치료’, ‘부부치료’의 단어를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 결과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제목, 저자, 학술지명, 권호, 발행처, 수록면, 년도, 초록 등의 상세정보를 Excel로 저장하였다.

셋째, Excel 파일에서 논문 제목과 초록의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을 포함하였고, 중복될 경우 학위논문만으로 한정하였다. 위의 준거기준 과정을 통해서 가족 및 부부상담을 대상으로 연구된 석사 학위논문 65편, 박사학위논문 33편, 학술지게재논문 137편, 총 235편을 선정하였다.

분석 기준

2015년-2020년의 기간 동안 발표된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분석대상 논문은 총 235편이며,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기준으로 한 자료유형, 연도별 경향성,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을 분석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동향을 개관하기 위하여 자료의 유형과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방법과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연구, 양적연구에 기반을 둔 조사연구, 해석적 탐구에 기반을 둔 질적연구,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를 함께 적용한 혼합연구 등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선행연구의 분석 기준 및 본 연구의 대상이 된 235편 논문의 키워드와 초록에 나타난 내용 분석을 토대로 가족 및 부부상담의 주요 개념과 모델 등 이론적 탐색,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한 실제 문제에 대한 실제적 탐색, 주요 정서 탐색,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현황 탐색, 특수 대상(다문화, 문제 행동, 장애, 중독 등)에 대한 탐색 등 5개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경향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에 기반을 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도 분석 기준에 포함하였다.

결 과

1. 기술적 분석 결과

1) 연구연도 및 자료유형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대상인 235편의 연구논문의 연도별 연구동

향은 <표 2>와 같다. 최근 6년 동안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 대한 연구논문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논문은 2015년 석사논문 22편, 박사논문 6편, 학술지 게재논문 34편으로 총 62편(26.5%)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 석사논문 5편, 박사논문 3편, 학술지 게재논문 18편으로 총 26편(10.7%)이 발표되어 2015년 총 62편(32.5%) 대비 2020년 총 25편(10.7%)으로 발표된 연구논문이 2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기준

분석기준		내용
자료유형과 연도	2015년-2020년 6년간 발표된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논문	
연구방법	문헌연구	동향분석, 쟁점논의, 모델/기법/이론 이해, 실태/현황 파악
	사례연구	문제 유형, 적용 모델, 치료대상 등의 실제 사례
	조사연구	관련변인 간 관계 검증, 척도개발 및 검증, 실태/현황 파악
	질적연구	현상학적/해석적 탐구에 기반
	혼합연구	양적/질적 연구방법 혼용
연구주제	가족 및 부부상담의 주요개념 및 모델 설명,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한 문제 상황, 정서적 요인, 현황분석, 특수 대상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	

표 2. 연구연도 및 자료유형에 따른 연구동향

연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계(%)
	박사	석사		
2015	6(18.1)	22(33.8)	34(24.8)	62(26.3)
2016	9(27.2)	14(21.5)	20(14.6)	43(18.2)
2017	4(12.5)	12(18.5)	22(16.1)	38(16.2)
2018	4(12.1)	5(7.7)	23(16.8)	32(13.7)
2019	7(21.2)	7(10.8)	20(14.6)	34(14.4)
2020	3(9.0)	5(7.7)	18(13.1)	26(11.0)
계(%)	33(100)	65(100)	137(100)	235(100)

2)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235편의 논문 중 사례연구의 경우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연구된 논문은 연구 내용을 확인하여 중복 산입하였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6년간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연구방법별 현황은 사례연구가 총 87편(36.1%)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가 65편(26.7%)으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헌연구 54편(22.3%), 조사연구 20편(8.2), 혼합연구 17편(7.0%)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문헌연구의 경우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모두에서 점차 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술지논문에서 질적연구가 학위논문에서 혼합연구가 각각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

연구주제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진 235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주제어와 초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와 초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주제를 대상과 대상의 문제 특성으로 대별한 후 5개 주제로 구분하였다. 연구주제는 크게 가족 및 부부상담에 대한 주요개념 및 모델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탐색,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한 실제 문제에 대한 실제적 탐색, 정서적 요인, 현황 분석, 특수 대상의 5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최근 6년간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는 가족 및 부부상담에 대한 이론, 치료기법, 모형, 상담 윤리 등 주요 개념과 모델을 주제로 하는 이론적 연구가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통해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한 문제 상황이나 특수 대상을 주제로 한 연구가 학술지논문을 통해서 다수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연도	연구방법										계 (%)
	문헌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2015	6 (23.1)	8 (28.6)	10 (38.5)	19 (31.1)	2 (16.7)	2 (25.0)	8 (32.0)	5 (12.5)	2 (18.2)	1 (16.6)	63 (100)
2016	6 (23.1)	6 (21.4)	6 (23.1)	10 (16.4)	4 (33.3)	-	5 (20.0)	5 (12.5)	-	2 (33.3)	44 (100)
2017	5 (19.2)	4 (14.3)	4 (15.4)	11 (18.0)	2 (16.7)	-	8 (32.0)	6 (15.0)	-	1 (16.6)	41 (100)
2018	3 (11.5)	5 (17.8)	2 (7.7)	6 (9.8)	-	1 (12.5)	-	10 (25.0)	3 (27.3)	-	30 (100)
2019	3 (11.5)	4 (14.3)	1 (3.8)	5 (8.2)	4 (33.3)	-	2 (8.0)	2 (5.0)	6 (54.5)	-	27 (100)
2020	3 (11.5)	1 (3.6)	3 (11.5)	10 (16.4)	-	5 (62.5)	2 (8.0)	12 (30.0)	-	2 (33.3)	40 (100)
소계 (%)	26 (100)	28 (100)	26 (100)	61 (100)	12 (100)	8 (100)	25 (100)	40 (100)	11 (100)	6 (100)	243 (100)
계 (%)	54(22.3)		87(35.8)		20(8.2)		65(26.7)		17(7.0)		

주. 분석대상논문 235편 중, 2개 이상의 연구방법 범주에 속하는 논문은 중복 산입하여 전체 243편의 논문으로 나타남.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가족 및 부부상담의 출현 빈도, 연결중심성, TF-IDF

가족 및 부부상담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텍스트를 활용하여 가족 및 부부상담에 대한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연결중심성을 파악하였다. <표 5>에서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 TF-IDF, 연결중심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정렬하였으나 연결중심성 및 TF-IDF 영역의 상위에 도출된 주요 키워드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빈도수 4 이상의 상위 58개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23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공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가족치료’가 58회로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났

다. ‘부부’, ‘가족상담’, ‘이마고’, ‘부부치료’ 등이 17회 이상 나타났으며, ‘가족’, ‘부부상담’, ‘부부갈등’, ‘의사소통’, ‘미술치료’, ‘결혼만족’, ‘상담’, ‘사례연구’, ‘부부관계’ 등의 키워드가 10회 이상 출현하였다. 연결중심성은 ‘가족치료’, ‘부부’, ‘가족상담’, ‘가족’, ‘부부치료’, ‘부부상담’, ‘부부갈등’ 등이 상위에 나타났고, TF-IDF는 ‘가족치료’, ‘부부’, ‘가족상담’, ‘부부치료’, ‘가족’, ‘이마고’, ‘부부상담’ 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즉, 23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키워드에 대한 출현 빈도, 연결중심성, TF-IDF 세 영역을 각각 분석한 결과, 공출현 빈도가 높았던 단어, 특정 단어와 다른 단어들 간의 연결 정도가 높았던 단어, 특정 문서 내에서 해당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단어의 상위에 도출된 주요 키워드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

연도	연구주제										계 (%)
	주요개념 및 모델 연구		경험한 문제		정서적 요인		현황 분석		특수 대상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2015	18 (30.0)	13 (21.3)	7 (46.6)	9 (36.0)	2 (66.7)	4 (30.7)	-	3 (25.0)	1 (6.6)	5 (18.5)	62
2016	14 (23.3)	17 (27.9)	5 (33.3)	1 (4.0)	-	-	-	1 (8.3)	3 (20.0)	2 (7.4)	43
2017	8 (13.3)	5 (8.2)	2 (13.3)	5 (20.0)	-	3 (23.1)	-	1 (8.3)	6 (40.0)	8 (29.6)	38
2018	7 (11.6)	11 (18.0)	-	3 (11.9)	-	2 (15.4)	-	3 (25.0)	2 (13.3)	4 (14.8)	32
2019	8 (13.3)	7 (11.5)	-	5 (20.0)	3 (33.3)	2 (15.4)	2 (100)	4 (33.3)	1 (6.6)	2 (7.4)	34
2020	5 (8.3)	8 (13.1)	1 (6.6)	2 (8.0)	-	2 (15.4)	-	-	2 (13.3)	6 (22.2)	26
소계 (%)	60 (100)	61 (100)	15 (100)	25 (100)	5 (100)	13 (100)	2 (100)	12 (100)	15 (100)	27 (100)	235 (100)
계 (%)	121(51.5)		40(17.0)		18(7.6)		14(5.9)		42(17.9)		

표 5. 가족 및 부부상담의 단어 분석 결과

단어	빈도	연결중심성	TF-IDF	단어	빈도	연결중심성	TF-IDF
가족치료	58	0.141	83.795	역기능	6	0.034	22.946
부부	24	0.068	54.136	자아분화	6	0.008	21.852
가족상담	19	0.023	48.324	인식	6	0.012	21.852
이마고	17	0.046	44.209	부부의사소통	5	0.010	19.121
부부치료	17	0.038	45.239	자아존중감	5	0.018	19.121
가족	16	0.032	44.715	불안	5	0.013	19.121
부부상담	16	0.029	42.578	청소년	5	0.009	19.121
부부갈등	14	0.028	40.163	가족체계	5	0.013	19.121
의사소통	14	0.039	39.125	해결중심	5	0.015	19.121
미술치료	13	0.026	37.294	근거이론	5	0.009	19.121
결혼만족	12	0.032	35.386	원가족	5	0.014	19.121
상담	12	0.031	35.386	가정폭력	4	0.011	16.190
사례연구	11	0.031	33.394	대상관계	4	0.015	16.190
부부관계	11	0.026	33.394	인형치료	4	0.013	16.190
분석	9	0.020	29.128	경험	4	0.015	16.190
보웬	9	0.027	29.128	부모상담	4	0.009	16.190
구조	8	0.026	26.834	집단상담	4	0.013	16.190
연구	8	0.022	26.834	현상학	4	0.009	16.190
애착	7	0.020	25.494	아동	4	0.007	16.190
적용	7	0.021	24.415	다문화	4	0.008	16.190
치료	7	0.023	24.415	교류분석	4	0.008	16.190
프로그램	6	0.015	22.946	정서중심	4	0.012	16.190
변화	6	0.015	21.852	자녀	4	0.012	16.190
체계	6	0.020	22.946	중년	4	0.011	16.190
다문화가정	6	0.019	21.852	통합	4	0.012	16.190
개발	6	0.013	21.852	부부관계치료	4	0.017	16.190
모델	6	0.014	21.852	연구동향	4	0.005	16.190
기독교상담	6	0.015	21.852	특성	4	0.008	16.190
부부친밀감	6	0.009	21.852	부모	4	0.014	16.190

2) 가족 및 부부상담의 N-GRAM 네트워크 그래프

N-GRAM은 n개의 단어로 문장들을 잘라내고 n 개 단어의 연결된 점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하여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단어들 간 동시출현 단어 빈도수를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를 통해서 두 개의 키워드에 대한 bigram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그려진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다음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가족치료(6건), 이마고-부부관계치료(4건), 보웬-가족치료(4건), 부부상담-사례연구(3건), 부모-자녀(3건), 다문화가정-부부(3건), 정서중심-부부치료(3건) 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3. 가족 및 부부상담의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결과

분석한 주요 키워드에 대한 밀도(density), 평

균연결정도(average degree), 평균거리(average distance), 직경(diameter), 컴포넌트 수 등을 나타내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석 대상인 235편의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네트워크 밀도는 .081이며, 각 연결선 간 평균 연결정도는 10.565이다. 이는 연결정도가 인접한 키워드 간의 연결정도의 평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0-20 정도의 연결정도를 가지고 있다. 연결선 간 평균거리는 2.321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2.321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컴포넌트 수는 1개이다. 또한 전체 컴포넌트의 수는 1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1개의 군집으로 네트워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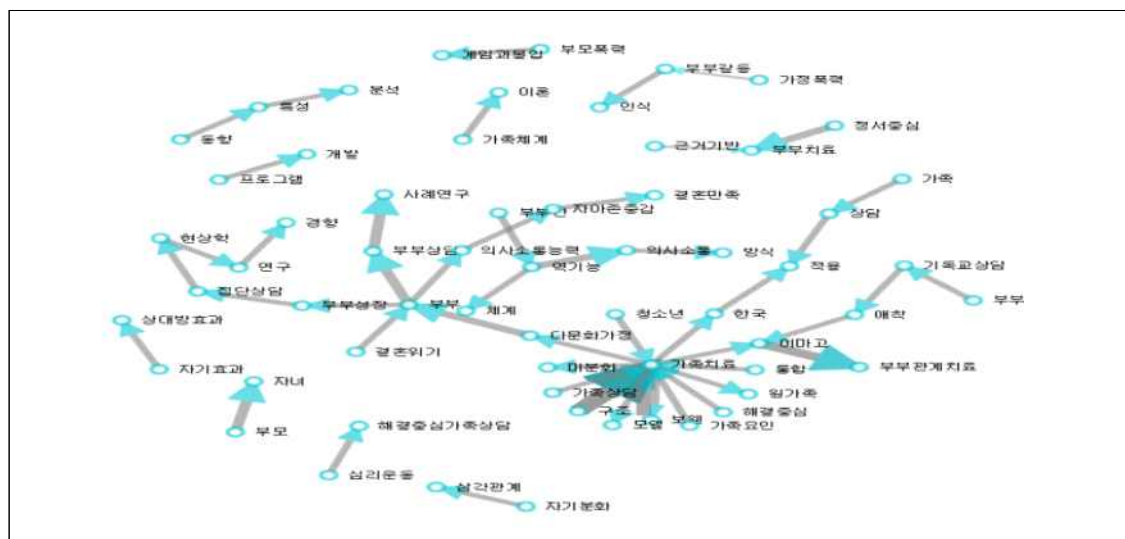


그림 1. 동시출현 네트워크

표 6. 네트워크 전체 분석

밀도	평균연결정도	평균거리	컴포넌트 수
.081	10.565	2.32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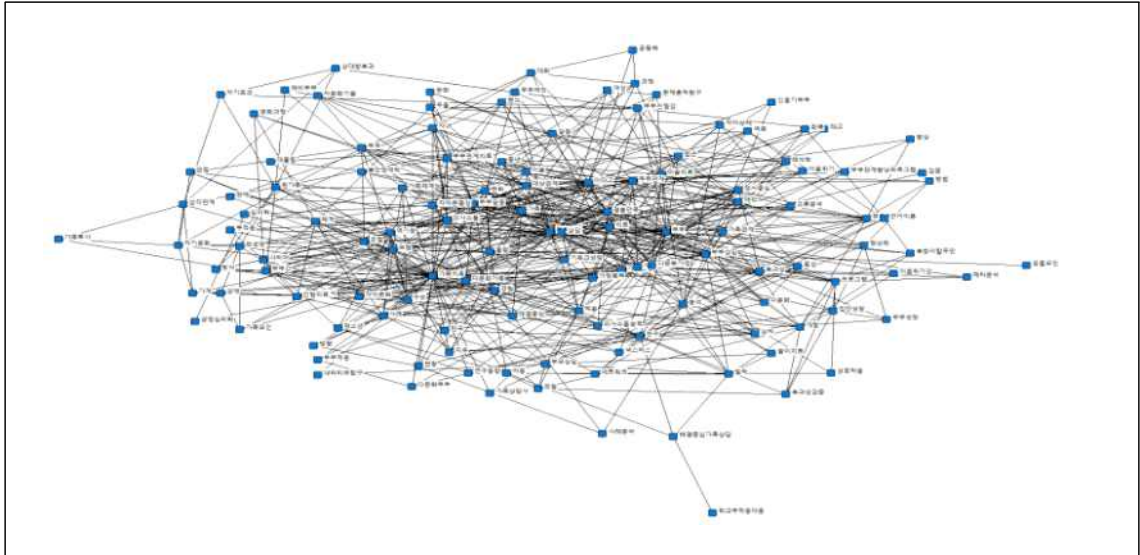


그림 2. 가족 및 부부상담의 전체 네트워크 시각화

전체 키워드 빈도와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UCINET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 과 같다.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은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통해 간접적인 연결패턴을 상관계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유사집단을 식별해내는 분석기법이다. 연결망 내의 노드들이 어느 정도 같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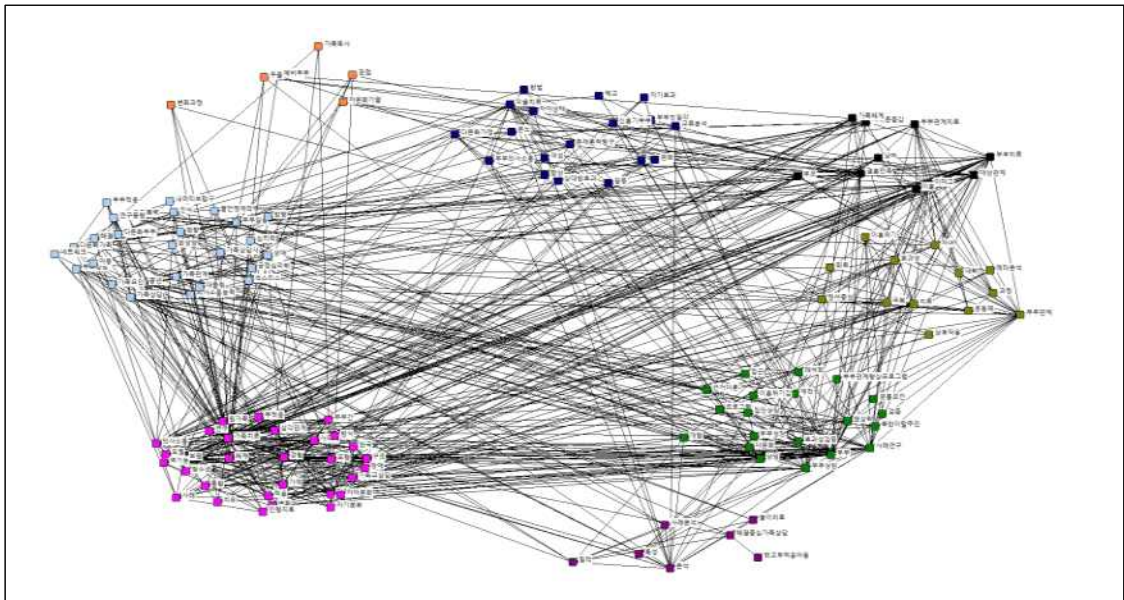


그림 3. 가족 및 부부상담의 CONCOR 분석 시각화

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을 분석하여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숨겨진 하위블록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사성 집단을 확인하여 비슷한 블록들의 등위적 계층을 찾아내는 것이다(김용학, 2016).

4. 가족 및 부부상담의 CONCOR 분석

CONCOR 분석 결과 8개의 하위집단이 형성되었고, 키워드 간의 관계성 첫째, 가족치료, 보웬, 청소년, 삼각관계, 구조적, 경험, 적용, 부적응, 인형치료, 자기분화, 사례 등의 키워드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치료 기법'으로 명명하였다(핑크색 집단). 둘째, 가족상담, 부부갈등,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가족요인, 가족상담사, 부부적응, 다문화부부, 내러티브탐구, 중년, 의사소

통능력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 '소통 및 갈등'으로 명명하였다(하늘색 집단). 셋째, 가족투사, 우울, 관점, 변화과정, 자문화기술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는 그룹에는 '감정 및 관점'으로 명명하였다(주황색 집단). 넷째, 부부의사소통, 다문화가정, 부부친밀감, 미술치료, 신혼기부부, 상대방효과, 갈등, 분노, 완화, 교류분석, 태교, 존재론적 탐구 등의 키워드가 그룹화되었으며, '신혼부부에 관한 이슈'라는 명칭으로 집단을 대표하고자 하였다(남색 집단). 다섯째, 부모, 가족체계, 부부관계치료, 결혼만족도, 이마고, 이혼, 상처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그룹을 '중년부부에 관한 이슈'라고 대표성을 정리하였다(검정색 집단). 여섯째, 자녀, 정서중심, 이혼위기, 효과성, 극복, 회복, 상호작용, 부부관계, 공동체, 대화, 메타분석 등의 키워드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기 및

표 7. 가족 및 부부상담의 CONCOR 분석 결과

하위 집단		키워드
1(핑크색)	가족치료 기법	가족치료, 보웬, 청소년, 의사소통, 경험, 적용, 부적응, 인형치료, 자기분화, 사례 등
2(하늘색)	소통 및 갈등	가족상담, 부부갈등,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가족요인, 가족상담사, 부부적응, 다문화부부, 내러티브탐구, 중년, 의사소통능력 등
3(주황색)	감정 및 관점	예비부부, 가족투사, 우울, 관점, 변화과정, 자문화기술 등
4(남색)	신혼부부에 관한 이슈	부부의사소통, 다문화가정, 부부친밀감, 미술치료, 신혼기부부, 상대방효과, 갈등, 분노, 완화, 교류분석, 태교, 존재론적 탐구 등
5(검정색)	중년부부에 관한 이슈	부모, 가족체계, 부부관계치료, 결혼만족도, 이마고, 이혼, 상처 등
6(카키색)	위기 및 극복	자녀, 정서중심, 이혼위기, 효과성, 극복, 회복, 상호작용, 부부관계, 공동체, 대화, 메타분석 등
7(초록색)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부부성장, 이혼위기감,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공동요인, 부부상담, 부부, 애착, 집단상담, 사례연구, 검증, 근거이론, 효과성검증 등
8(보라색)	기타	놀이치료, 학교부적응아동, 해결중심가족상담, 사례분석, 특성 등

극복'이라고 명명하였다(카키색). 일곱째, 부부성장, 이혼위기감,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공통요인, 부부상담, 부부, 애착, 집단상담, 사례연구, 검증, 근거이론, 효과성검증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그룹을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초록색 집단). 마지막으로 놀이치료, 학교부적응아동, 해결중심가족상담, 사례분석, 특성 등의 키워드가 그룹화되었으며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아 '기타'로 명명하였다(보라색 집단). 이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15년-2020년에 발표된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연도별, 자료유형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동향을 분석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연구에 나타나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이후 최근까지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 관련된 연구는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빛내 등(2018)의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커플치료 관련 연구가 1995년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매년 20%이상씩 증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2015년 34편에서 2019년 20편, 2020년 18편으로 감소되었고, 학위논문의 경우 2015년 28편에서 2019년 14편, 2020년 7편이 각각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및 부부의 관계 변화, 가족 간 갈등과 정서적 단절의 심화,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과 가족의 해체가 증가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리고 상담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상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가족 및 부부상담 영

역에서의 연구가 정제된 원인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 구조, 기능, 역할, 가치관 등은 변화하고 있고, 비혼 및 1인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하는 문제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연구에 있어서도 가족의 형태와 구조, 가치관 등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지, 가족과 부부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상담사의 전문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충분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에 기초하여, 사회 변화와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족 및 부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가족과 사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및 부부 상담 영역에서 어떠한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 정제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 관련된 연구방법별 경향성에서 나타나듯이, 사례연구와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조성봉 등(2019)의 연구에서 문헌연구보다는 경험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문헌연구의 경우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모두에서 점차 덜 사용되고 있으며, 학술지논문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학위논문에서는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35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문헌연구의 경우 가족 및 부부상담의 주요 개념 및 모델에 대한 분석, 현황조사 및 방안 제시, 성과 분석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 조사연구의 경우 척도 개발, 기존 척도의 효과성 검증, 변인 간 관계 검증, 실태 및 현황 조사를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질적연구의 경우 구체적인 경험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논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질적연구

방법론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료분석 방법이 근거이론, 현상학, 해석학, 상징적상호작용론,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등으로 점차 다양화 되었고, 현상학 연구방법 내에서도 Giorgi 현상학, 해석학적 현상학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한 학위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족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사례에서 개별적 의미성을 찾되 질적 연구방법이 가지는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연구와 병행하는 혼합연구방법이 적용된 연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밀 보장이라는 상담의 기본 원칙과 상담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 영역에서의 연구경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집적하는 것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 관련된 연구주제별 경향성에서 확인한 바,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가족 및 부부상담 이론과 치료 기법, 상담 모형, 상담 윤리 등을 포함하는 주요 개념과 모델에 대한 연구로 6년간 모두 121편 전체 논문의 51.5%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의 특성과 가족 및 개인의 경험(조성봉 외, 2019), 부부의 문제 상황, 정신적 요인, 가족주기 관련 요인, 특수 가족 문제, 주요 치료이론 및 기법(최빛내 외, 2018), 가족치료 모델 및 이론, 문제유형별 사례 연구(박정희 외, 2007)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도 주요개념과 모델에 대한 주제는 6년 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는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연구와 특수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정서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족 안에서도 정서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질 것임은 충분히 예측된다. 불안, 위축, 스트레스, 우울, 강박, 공격성, 충동성, 소외감, 심리적 부적응, 위기감, 상실감, 무력감, 허탈감, 고독감 등의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대인 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 구성원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담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 분석에 더해 가족과 부부 상담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정서적 요인을 탐색하고, 어떤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며, 개인 상담 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서적 요인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 정서적 요인과 관련된 효과적 상담 기법의 실재는 어떠한지 등을 주제로 하는 실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확대가 요청된다.

넷째, 분석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 대부분의 키워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변인들 간의 연관성이 높고, 주요 주제 간의 연결성과 맥락 등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의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의 연구주제는 부부상담 이론과 치료 기법, 상담 모형, 상담 윤리, 가족 및 부부가 경험한 문제 상황, 특수한 대상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질적연구에 기반한 사례연구, 척도 개발이나 기존 척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연구, 혹은 혼합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의 연구방법이 기존의 문헌연구나 양적연구 중심에서 최근 질적연구에 기반한 사례연구도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연구방법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공학적 방법이나 철학적 방

법을 적용한 연구로의 확대도 가능해진다면 상담학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가족 및 부부상담 이론이나 모형, 상담윤리 등의 주제에 더불어 가족과 부부가 실제 경험하는 정서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거나, 정서적 요인에 따른 효과적 상담 기법을 개발하거나, 가족 및 부부 상담 영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확대시키고, 이를 가족 및 부부 상담 영역의 현장에 적용한다면 상담가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 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N-GRAM 네트워크 그래프에 나타난 동시출현 네트워크로 상위 6개 집단이, CONCOR 분석 결과로 8개의 대 집단이 각각 형성되었다. 구조-가족치료(6건), 이마고-부부관계치료(4건), 보웬-가족치료(4건), 부부상담-사례연구(3건), 부모-자녀(3건), 다문화가정-부부(3건), 정서중심-부부치료(3건) 등의 6개 집단이 동시출현 네트워크로 형성된다는 것을 통해 가족 치료에는 구조적 가족치료와 보웬의 가족치료 모델이, 부부관계치료에는 이마고상담과 정서중심 모델의 적용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숨겨진 하위블록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사성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CONCOR 분석 결과에서는 8개의 하위집단이 형성되었다. 동일 집단으로 묶인 키워드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치료 기법, 소통 및 갈등, 감정 및 관점, 신혼부부에 관한 이슈, 중년부부에 관한 이슈, 위기 및 극복,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기타로 명명해 보았다. 부부 및 가족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이와 같은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키워드를 통해 가족과 부부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족 및 부부 상담 영역의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치료기법, 부부,

소통과 갈등, 위기 및 극복, 부부 상담 프로그램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각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가족 및 부부상담 영역에서의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몇몇의 결과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 학문영역에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실제영역에서의 실천적 과정에 대하여 어떤 과제를 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로 이어지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경신 (2016). 가족의 변화와 가족문제, 대안으로서의 가족상담. **푸드아트테라피**, 5(1), 57-73.
- 김남연, 양난미 (2012). 국내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2000년-2011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5), 2505-2522.
- 김용학 (2016).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김현수, 노미화, 조성봉 (201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 분석: 임상치료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6(4), 729-760.
- 박정희, 최연실, 도은숙, 서신화, 안연주 (2007). 국내외 주요 학술지들에 나타난 가족치료 연구의 주제별 경향: 2000-2005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47-74.
- 변기용, 이석열, 김수홍 (2010).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1), 121-145.
- 서진환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연구경향 분석 연구: 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30.

- 신혜중 (2015).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현황과 과제: 일 학회 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781-800.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13). 가족관계학. 경기도: 교문사.
- 유혜림, 민인식 (2018). 한국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 연관규칙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학연구**, 38(2), 555-588.
- 이미옥 (2019). 국내 동적가족화(KFD) 연구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5(2), 27-50.
- 이선헌, 신영화, 서진환 (2005). 한국가족치료의 현재와 인력: 전국기관 조사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1), 79-123.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30.
- 조성봉, 노미화, 김현수 (2019).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7(1), 149-180.
- 최규련 (2008). **가족 상담 및 치료**. 고양: 공동체.
- 최빛내, 최우정, 최연실 (2018). 커플치료의 연구동향 분석-국내 상담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2), 310-320.
- 최영출, 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최지원, 김수지 (2018). 한국 가족치료의 현황과 실제에 관한 연구: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4), 709-728.
-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9월 14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10월 08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10월 28일

Research Trends of Family and couple counseling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Lee, Jee-Young

Cheon, Seong-Mo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ukye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in the family and couple counseling area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this purpose, using the database of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235 papers published in 2015-2020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key words were selected using Textom and UCINET 6's NetDraw program, the frequency of word occurrence was analyzed and visualized. In order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 frequency analysis, structural characteristic analysis, 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 entire network, and centrality analysis were applied. The major findings are briefly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he last 6 years, studies in the field of family and couple counseling have decrea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end in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search is gradually decreasing. And in recent year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re increasing in journal papers, and mixed research methods are increasing in degree thesis. As for the research subject, research on the concept and model of family and marital counseling have been steadily published. And on the subject of Special group, problem situations experienced by families and couples were also being published through journal articles. Secondly, analyzing the average degree of connection between keywords and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connection lines, most of the keywords were connected to each other. This mea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is high, and the connection and context between the main topics are similar. Thirdly, the results of CONCOR analysis to confirm the similarity group are as follows. Research conducted in the area of family and couple counseling which was confirmed to be conducted within the categories of family therapy techniques, couples, communication and conflict, crisis and overcoming, and couple counseling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ubsequent research in areas of family and couple counseling.

Keywords : network analysis, Family and couple counseling, Research trends

구조적 가족치료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1991~2019

유 두 리*

화성시청

본 연구는 다양한 상담이론 중에서 일반 체계 이론을 근거로 하여 가족의 구조와 하위 체계, 그리고 경계선을 강조한 구조적 가족치료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대 사회의 주요한 상담이론 중인 하나인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6편의 학술 논문(KCI 등재)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연구의 유목과 연구 방법별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유목별로는 (임상적) 치료 연구가 69.23%, 비(非) 치료 연구가 30.77%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별로, 질적 연구 방법은 88.47%, 양적 연구 방법이 11.5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의 중요성을 밝히고, 비(非) 치료 연구 및 연구 방법의 통합적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동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두리, 경기도 화성시청 주무관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Tel : 010-2978-5109, E-mail : taya0115@naver.com

가족은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또한 인간의 요람으로서 가족은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적 단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에 따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다(김소은, 2001).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갈등 문제이다. 2019년 통계청의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 4년 이하 21.01%, 5~9년 18.03%, 10~14년 14.39%, 15~19년 11.87%, 20년 이상 34.68%로 혼인 기간 4년 이하의 높은 이혼율은 결혼 초기 부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9).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부부가 배우자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원가족의 부모와 해결하지 못한 관계를 배우자로부터 이루려고 하는 왜곡된 상호작용이 부부관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하현철, 2012). 가족은 부부로 시작되고 부모는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근원이자 모델이기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 시작되는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기능적인 부부체계에서 시작된 모호하거나 경직된 경계가 다음 세대인 자녀나 형제제대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가족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는 1979년 “가족 치료에 있어서 BOWEN 이론과 MINUCHIN 이론의 비교연구”(한인영, 1979)를 통해 구조적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이 소개된 이후, 가족치료, 상담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가족학 등 관련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다. 또한 200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치료자 중 59.8%(중복응답 결과)가 치료 방법으로 구조적 가족치료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았고, 27.6%가 치료 방법으로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을 적용하고 있었다(이선훈, 신영화, 서진환, 2005). 이는 가족치료 임

상 현장에서 구조적 가족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의 결과물이 다양하게 축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조성봉, 노미아, 김현수, 2019)를 통해 가족치료와 관련된 동향 연구가 선행되었지만, 이 선행연구는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실린 가족치료 연구만을 분석하여 다른 학술지에 실린 구조적 가족치료의 연구 동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KCI등재)에 실린 논문 중 구조적 가족치료와 관련된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고찰하여 국내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구조적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 동향을 통해 국내 상담학 연구에서 구조적 가족치료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족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구조적 가족치료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의 유목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구조적 가족치료의 연구 방법은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

가족치료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정신과 의사가 된 미누친(Salvador Minuchin)은 체계론적 관점에 기초한 구조적 가족 상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미누친은 개인의 내적 성장 과정에 가족 환경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 기법과 더불어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치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조적 가족 상담 이론을 개발하게 되었다. 미누친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에 의해 의사소통을 규제하며 서로를 대하는데 이 패턴을 구조라 하였고 이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Minuchin, 1979). 가족 구성원들 중 어느 한 구성원만이 문제에 직면해있어도 그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었는데(Nathan W, 1970), 그 이유는 가족의 구조가 변하면 가족 구성원들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 가족치료는 행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현재를 수정하는 것을 치료 도구로 삼고 있다.

가족구조

가족구조란 가족원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능적 요구로, 반복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가족의 행동 양식이다(정문자, 2008). 이러한 가족구조는 가족마다 독특한 하위체계를 구성하는데 개인은 각 하위체계에서 각기 다른 권력과 역할을 가지며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아내와 딸, 어머니, 며느리 등이 되어서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이 하위체계에서 주어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가족을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한다.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이란 가족의 일부 혹은 전체 하위체계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을 일컫는다.

미누친은 가족을 부부, 부모자녀, 형제 하위체계로 구분하였고 부모자녀, 형제 하위체계에서 파생하여 만난 부부인 두 사람이 하위체계를 이루면서 시작되는 것을 가족이라 하였다(김순옥 외, 2012). 부부 하위체계는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로 다른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만난 두 사람이 상호작용적 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서적 환경을 서로 제공하고 파트너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이다(송정애, 2013). 부모자녀 하위체계는 부부의 세대로부터 또 다른 세대가 구성되는 것으로, 자녀가 생기면 부모자녀 하위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양정숙, 2016). 형제 하위체계는 협동, 경쟁, 협상과 같은 사회화를 형제들끼리 먼저 학습할 수 있는 체계이다.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과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며 형제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육을 해줌으로써 형제체계 사이의 중간역할을 맡는다(류종훈, 설영익, 노수경, 2005).

경계선

경계선이란 보이진 않지만, 개인과 하위체계 간 또는 가족 구성원과 다른 가족 사이에 허용할 수 있는 구분이다. 따라서 경계선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상호작용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떤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경계선은 개인 그리고 하위체계 사이 경계가 어떻게 분화가 되어있는 정도에 따라 명확한 경계선, 혼돈된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으로 구별된다. 대부분의 가정 문제는 가족 경계가 극도로 모호하거나 경직되었을 때에 생기게 되므로 가족 체계는 가족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Philip J, 1976).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하위체계들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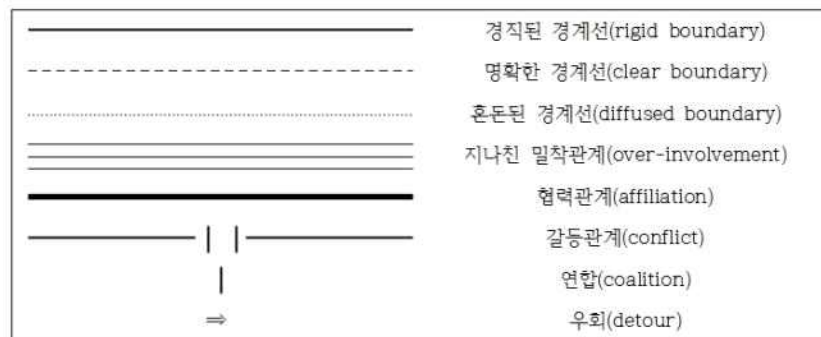


그림 1. 가족지도에 사용되는 경계선

분명하고 이상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명하고 명확한 경계는 하위체계 사이의 분리성을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이 전체 가족체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강조한다(류종훈 외, 2005). 혼돈된 경계선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명확한 규칙의 부재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가족 구성원이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어 독립과 자율성이 부족한 가족이 된다. 경직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혼돈된 경계선의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가족 간의 상호교류가 어려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치료목표

구조적 가족치료의 목표는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있으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족의 문제나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고 본다.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수정하기 위해, 상담자는 그 가족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 스스로가 문제를 표현하고 재규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즉, 가족의 모호하거나 경직된 경계선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각 하위체계 고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구조적 가족치료의 목표이다(류종훈 외, 2005).

상담자의 상담적 개입은 합류하는 단계, 가족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 개입하는 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 합류는 상담자가 가족과 인간적인 관여를 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가족구조의 재구조화를 위해 상담자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가족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가족의 하위체계, 위계 구조, 경계선을 사정하고 평가한다. 가족원의 수, 성별, 종교, 연령, 제시된 문제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기초적인 가족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재구조화 단계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담자가 가족원의 관점과 신념체계를 흔들며 가족원의 변화를 위한 동기를 갖게 하는 단계이다(최규련, 2011).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국내 석, 박사 논문이나 학술 논문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특성, 연구 주제, 연구 방법론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

은 제외하고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 논문만을 다룬 이유는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물은 단행본, 학술 논문, 학위 논문, 기타 연구 보고서, 관련 세미나 및 포럼의 연구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술 논문은 학문의 연구동향을 가장 집약적이고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송희,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연구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구조적 가족치료에 관련된 학술 논문의 검색은 1단계로 검색엔진(KISS, DBpia, KERIS, 국회전자도서관 등)에서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이라는 키워드로 서지를 검색하였고, 2단계로 검색 결과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면서 해당 연구가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를 다룬 연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 가족치료 학술 논문 68편 중 구조적 가족치료를 다루고 있지 않거나 KCI 미등재된 학술 논문을 제외한 후 26편의 논문을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의 틀

서진환(2008)에 의한 분석틀은 가족 치료학을 비롯한 상담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김은영, 2007). 따라서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동향의 자료 분석을 위한 틀로써, 서진환(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표 1. 분석 대상 논문 목록

학술기관	학술지명	발행연도	권호	논문편수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1993년~2016년	제1권~제27권	12편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2012년~2019년	제13권~제20권	2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2019년	제8권	1편
가정과삶의질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1년~2015년	제9권~제33권	2편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017년	제12권	1편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지	2001년~2004년	제3권~제7권	3편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4년	제42권	2편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회지	1996년	제3권	1편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998년	제5권	1편
한국 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1년	제12권	1편
총계		26편		

다시 구성·정리하였다. 이 분석 틀은 연구를 (임상적) 치료연구와 비(非) 치료연구로 구분한 뒤 (임상적) 치료연구를 성과, 과정, 사례 연구로, 그리고 비(非) 치료연구를 경험, 문헌 연구로 유목화한다. 성과연구는 주로 특정 이론이나 모델의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특정 대상들에게 개입하여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구이고(서진환, 2008), 과정 연구는 치료의 변화과정과 치료의 성공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김미혜, 2000; 김은영, 2007). 비(非) 치료연구의 사례연구는 특정한 문제를 가진 가족에게 특정 이론이나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이고 경험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이론 및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한 연구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의 틀로써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 질적, 양적·질적 연구 혼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결 과

유목에 따른 분석

1991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26편의 구조적 가족치료 학술 논문을 유목에 따라 표 3과 같이 분석하였더니, (임상적) 치료연구 18편(69.23%), 비(非) 치료연구는 8편(30.77%)으로 (임상적) 치료연구가 비(非) 치료연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연구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비(非) 치료연구가 (임상적) 치료연구에 비해 약 1.5배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서진환(2008)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199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발표된 성과연구는 2001년 2편, 2015년, 2017년 각 1편, 총 4편으로 전체 연구의 15.38%, (임상적) 치료연구에서는 22.22%를 차지하였다. 4편에 해당되는 성과연구들의 특징을 기술해보면, 가족을 대상으로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모델이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과연구의 대상 집단은 섭식장애아, 정서 행동장애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 자살 유가족과 같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각 2편이었다. 전해성(2017)의 연구는 Roberrs의 7단계 위기개

표 2. 유목에 따른 분석 틀 (서진환, 2008)

(임상적) 치료연구	성과연구	
	과정연구	
	사례연구	
비(非) 치료연구	경험연구	실태/현황 파악
		이론/모델검증, 관련변인 간 관계검증
		척도개발 및 검증
	문헌연구	현상발견이나 탐색 및 이론 개발
		연구동향 분석
		쟁점논의(문화, 여성, 윤리)
	문헌연구	모델/기법 소개와 설명
		관점과 이론에 대한 심층이해
		실태/현황 파악

표 3. (임상적) 치료연구와 비(非) 치료연구의 연도별, 유목별 동향

연도	유목	(임상적) 치료연구			비(非) 치료연구		총계(%)
		성과	과정	사례	경험	문헌	
1991				1			1(3.84)
1993						1	1(3.84)
1996					1		1(3.84)
1997						1	1(3.84)
1998					1		1(3.84)
1999				1		1	2(7.69)
2001		2	1		1		4(15.38)
2003			1				1(3.84)
2004			1		2		3(11.53)
2010				1			1(3.84)
2012				1			1(3.84)
2015		1		1			2(7.69)
2016				1			1(3.84)
2017		1	1	2			4(15.38)
2019			1	1			2(7.69)
총계(%)		18(69.23)			8(30.77)		26(100.00)

입모델을, 유승은, 박부진(2015)의 연구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를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Maudsley의 모델을 적용하여 회기별로 인터뷰를 진행한 김준기(2001)연구와 MRI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를 사용한 박태영(2001)연구가 있었다.

가족치료 과정 연구는 치료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Pinsof, 1981, 김미혜,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총 26편의 연구 중 5편(19.23%)의 연구만이 진행이 되었고 총 (임상적) 치료연구 18편 중 5편(27.77%)으로 다소 미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을 자료 분석 방법별로 나열해보자면 대화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현주, 정문자(2017)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들은 근거이론에 따른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로 분석한 연구들은 논문 제목에 ‘사례연구’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고 총 (임상적) 치료연구 18편 중 9편(50.00%)으로, 가족치료 연구 중 가장 빈도가 높았다. 1991년도 1편의 연구로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매해 1편 이상의 사례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를 통해서도 가족이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가족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 현장 가족치료 사례의 특징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서진환, 2008).

경험연구에서는 척도개발 및 검증 도구의 적용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19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편(60.00%)으로 가장 많았다. 이론·모델 검증 영역의 경우 1998년도와 2004년도에 각 1편, 총 2편(40.00%)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컸

표 4. 비(非) 치료연구 - 세부항목별 동향

비(非)치료연구	연 도							총계 (%)
	1993	1996	1997	1998	1999	2001	2004	
경 험 연 구	실패/현황 파악 이론/모델 검증, 관련 변인 간 관계검증			1			1	2 (40.00)
	척도개발 및 검증	1				1	1	3 (60.00)
	도구의 적용 및 활용							
	현상발견 탐색 및 이론개발							
경험연구 총계(%)		1 (20.00)		1 (20.00)		1 (20.00)	2 (40.00)	5 (100.00)
연구동향분석								
문 헌 연 구	쟁점논의	1		1		1		3 (100.00)
	모델/기법 소개와 설명							
	관점과 이론에 대한 심층이해							
	실패/현황							
총계(%)		1 (20.00)		1 (20.00)		1 (20.00)		3 (100.00)

다. 이미옥(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 체계 진단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적 상호작용척도를 이용하여 가족 경험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미옥(2004)의 연구에서는 동적 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 지각과 가족 체계와의 관련성 연구를 위하여 관련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경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패·현황 파악, 현상 발견이나 탐색 및 이론개발에 관련된 연구는 선행되지 않았다.

문헌 연구에서는 총 3편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모두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연구였다. 세부적으로 나열하자면 문화적 차이 이슈를 다룬 홍영택(1999)의 연구와 여성주의 이슈를 다룬 김성천(1993)과 박태영(1997)의 연구가 있었다. 문화적 차이 이슈를 다룬 연구는 외국에서 도입된 가족치료 이론을 국내에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다루었고 여성주의 이슈에서는 성

불평등 문제에 무심하게 된 가족치료 연구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이 연구에서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는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이 23편으로 전체의 88.47%, 양적 연구 방법이 3편으로 전체의 11.53%를 차지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의 경우, 상담이나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내담자에게 적용하거나 내담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탐색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사례연구의 특성상 내담자와 회기별 인터뷰를 통하여 내러티브를 탐색하거나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내러티브라는 속성상 양적 연구 방법보다 질적 연구

표 5. 연도별 학술지 논문 연구방법

연구 방법 \ 연도	연구년도				총계 (%)
	1991-1997	1998-2004	2005-2011	2012-2019	
양적연구		2		1	3(11.53)
질적연구	4	9	1	9	23(88.47)
혼합연구 (양적·질적)					
총계 (%)	4(15.38)	11(42.30)	1(3.84)	10(38.46)	26(100.00)

방법으로 분석되었을 때 보다 더 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Nelson & Poilin, 1997; 이선훤 외, 2018 재인용)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에 있어서도 질적 연구 방법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론을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험연구의 연구 방법 적용에 대한 시기별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양적 연구 방법은 초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최근에서야 질적 연구 방법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과 대비했을 때(서진환, 2008) 본 연구에서는 2001, 2004, 2015년 오직 3편의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학술 논문만이 발표되어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가족치료 연구 중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특성상 새로운 이론이나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효과성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방법보다는 기존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을 적용하여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선훤(2018)의 이야기 치료 동향 연구에 따르면 이야기 치료의 특성상 대부분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연구가 많았고 표준화 척도를 활용하여 t-검정을 실시한 유일한 양적 연구 방법은

1건으로 양적 연구 방법의 빈도가 낮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개별 연구물들의 종합·분석은 기존 연구물들을 양적으로 통합하고 질적으로 종합하는 노력을 통해 학술적으로도 검증된 지식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장덕호, 신인수, 2011), 가족치료 양적 연구 방법의 위치 및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향후 양적, 질적인 통합된 연구 방법을 적용한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를 기대해본다.

논 의

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와 관련한 학술 논문 26편을 유목화에 따른 분류와 연구 방법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를 독려해야 하는 이유와 향후 연구 방향을 위한 비판적 논의를 제공하여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를 유목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서진환(2008) 연구의 분석 기준의 틀을 이용한 결과 (임상적) 치료연구가 비(非) 치료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었다. (임상적) 치료연구에서 성과연구는 총 4편,

(임상적) 치료연구의 22.22%로 매우 저조하였다. 특수한 치료전략과 기법들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성과연구는 가족치료의 미래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정영순, 2000), 가족치료의 전문성 인정과 가족치료의 보험적용 등 대중적인 보급 확산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성과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해보았을 때(서진환, 2008), 향후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에 있어서 성과연구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단 3편의 연구만이 발표가 되었고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연구 또한 성과연구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다소 미진한 연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정 연구는 성과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에 사회과학의 조사 방법을 그대로 가족치료 연구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해보아도 과정 연구의 미진한 실적은 아쉬운 상황이다. 반면, 사례연구는 (임상적) 치료연구 논문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다. 1991년도 1편의 연구로 시작하며 최근까지도 매해 1편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양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연구자의 상담 사례만을 나열한 것이 아닌 내담자의 문제, 진단, 상담 과정과 성과 등을 연구자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향후 구조적 가족치료 사례연구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발전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非) 치료연구인 경우, 경험연구는 5편, 문헌 연구는 3편으로 두 연구 모두 최근에는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지 않았다. 경험연구인 경우 관련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거나 척도개발 및 검증을 하는 연구에 치중해 있었고 문헌 연구인 경우 여성주의, 문화적 이슈에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는 연구만이 진행이 되었었다. 새로운 이론을 개발한다거나 관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쉬웠고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에 있어서 (임상적)

치료연구뿐만 아니라 비(非) 치료연구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해 본다.

둘째,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의 연구방법론 중 질적 연구 방법이 전체의 88.47%로 우세하였다. 가족치료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의 병용을 통한 상호 보완이 필요하나 현재 연구에서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최연실, 2002)는 의견과 상응하였고 추후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에서 연구방법을 통합하여 연구의 심층적인 면과 객관성을 동시에 다룬다면 연구의 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질적 연구 방법이 주로 분석 절차의 일부만 사용한 연구가 많아 명확한 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김혜신, 2013) 구조적 가족치료 연구에 있어서도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 분석 절차를 모두 적용하여 보다 신뢰도가 높은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사례연구 중심인 질적 연구 방법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질적 연구 방법의 경우 자료가 갖는 심층적인 의미를 구조적 가족치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적 연구 방법 또한 재조명되어 상호보완적인 연구 방법을 병용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한계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주요 검색엔진(KISS, DBpia, KERIS, 국회 전자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라는 키워드로 서지를 검색하였기 때문에, 이들 검색엔진에 색인되지 않거나 검색이 되지 않은 학술 논문의 경우 검색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학술 논문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한국연구재단(KCI)에는 등재가 되어있지 않지만, 구조적 가족치료에 관한 학술 논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KCI)에 미등재 되어있는 학술 논문들과 본 연구에서 다루

지 않았던 학위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자들에게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곽형식, 이미옥 (2003). 동적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 지각과 가족 하위 체계와의 관계 :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기초하여. **대한가정학회**, 8(1), 1-21.
- 김미혜 (2000). 가족치료 연구방법. **가족치료총론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편)**. 서울: 동인.
- 김성천 (1993). 가족치료 이론에 대한 양성 평등주의자의 비판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1), 89-104.
- 김소은 (2001).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본 군인 가족치료**.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곽소현, 노명숙, 류경희, 배선희, 송현애, 왕석순, 이광자, 이화자, 한상금 (2012). **가족상담**. 경기도: 교문사.
- 김유숙 (1998). 가정폭력과 가족치료.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13, 33-45.
- 김준기, 공성숙 (2001). 섭식장애 가족에 대한 개입. **한국가족치료학회지**, 9(2), 35-49.
- 김혜선 (2013).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분석: 2008년-2012년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논문**.
- 류종훈, 설영익, 노수경 (2005). **가족상담과 치료원리**. 서울: 은혜출판사.
- 박순천, 윤경자 (2017). 자녀의 등교거부 및 폭력적 행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족에 대한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사례연구: 가족평가 4단계 모델의 활용.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12(3), 49-72.
- 박태영 (1997). 재미교포 부부 가족문제에 대한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의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5(1), 117-140.
- 박태영 (2001). 집단따돌림 당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상호작용적 가족치료와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적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2(-), 95-119.
- 박태영, 박진영 (2010). 틱 장애 아동의 가족치료 다중사례 내용분석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18(2), 27-56.
- 서종남 (2003). 고부갈등이 빚어낸 시모의 우울증 심리치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6(1), 100-142.
- 서종남. (2004). 시모에 남편 빼앗긴 주부의 우울증 심리치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7(-), 340-384.
- 서종남 (2001). 한국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구조적 가족치료의 적용.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3(1), 51-94.
- 손정연, 김순옥 (1991). S. Minuchin의 구조적가족주의이론의 한국적 재조명. **가정과삶의질학회**, 9(2), 345-366.
- 송정애 (2013).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양서원.
- 양정숙 (2016).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을 적용한 부부상담 사례연구**.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은선, 정연주 (2019). 상담거부 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모형 제안 -다중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20(1), 249-268.
- 염은선, 정연주 (2017). 청소년자녀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사례연구 -부모폭력과 게임 과몰입 청소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구조적 가족치료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25(2), 347-373.
- 오승환 (1996). 한국적 임상사회사업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구조적 가족 치료의 적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1), 319-339.
- 유기웅 (2014). 인적자원개발 연구동향 분석: 최근

- 10년(2004-2013)간 AHRD 학술지를 중심으로. **HRD연구**, 16(2), 1-23.
- 유승은, 박부진 (2015).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효과. **가정과삶의질학회**, 33(4), 33-50.
- 윤경자 (2015). 외도로 인한 이혼위기의 부부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23(1), 55-88.
- 이미옥 (2001). 가족체계 진단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관점. **가족과 가족치료**, 9(2), 73-92.
- 이미옥 (2004). 가족체계 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기초. **대한가정학회**, 42(3), 179-193.
- 이선헌, 신영화, 서진환 (2005). 한국 가족치료의 현장과 인력 : 전국기관조사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13(1), 79-123.
- 이선헌, 송영매, 김민아, 서진환 (2018). 정신장애인 자기-스티그마 감소프로그램의 개발과 파일럿 실행: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이야기치료의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6(1), 157-183.
- 이영분, 신영화, 권진숙 (2010). **가족치료-모델과 사례**. 서울: 학지사.
- 이정연 (1999). 구조적 가족치료를 적용한 우울증 주부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7(2), 27-43.
- 이현주, 정문자 (2017). 통합적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ADHD 아동 가족의 가족체계 변화 및 치료적 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25(3), 439-470.
- 이화자 (2016). 공황장애 아내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 및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24(4), 573-598.
- 장덕호, 신인수 (2011). 교육학 연구방법으로서 메타분석(Meta-analysis)의 발전과정 고찰. **교육과학평가연구**, 14(3), 309-332.
- 장승옥 (1998).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구조적 가족치료. **한국청소년학회**, 5(1), 137-154.
- 전혜성 (2017). 자살 유가족의 외상 대처 및 가족 재구조화를 위한 위기개입 가족상담 - 위기개입모델 및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에 기반하여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5(2), 375-400.
- 정명환, 심호석 (1996). 우리나라의 경영학 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학회지와 대한경영학회지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13(1), 315-334.
- 정문자 (2008). 한국가족의 문제와 관련된 변인의 발달단계별 탐색: 1982-2007년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9(2), 1-41.
- 정영숙 (2015). 다문화여성의 문양만다라에 반영된 색채반응과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계. **한국미술치료학회**, 22(6), 1633-1648.
- 정영순 (2000). 가족치료 결과 평가. **가족치료총론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편)**. 서울: 동인.
- 정은정, 박소민 (2016). 성인교육에서의 평가 연구동향 분석-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19(3), 56-97.
- 조성봉, 노미화, 김현수 (2019).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27(1), 149-180.
- 최규련 (2011). **가족상담 및 치료**. 경기도: 공동체.
- 최연실 (2012). 자녀 해외유학 “기러기가족”의 가족구조 분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13(6), 2965-2986.
- 최연실 (2002). 한국가족치료연구에서의 질적방법의 활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1), 101-129.
- 하현철 (2012). **가족이미지 표현을 통한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사례 연구**. 충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승희 (2001). **평생교육연구의 메타인식: 전개와 방향.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 한인영 (1979). 가족치료에 있어서 BOWEN이론과 MINUCHIN이론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택 (1999). 한국 가족의 문화지체 현상과 가족치료적 접근, *가족과 가족치료*, 7(1), 53-74.
- Nelson, M. L. & Poulin, K. (1997). Methods of constructivist inquiry. In T. L. Sexton & B. L. Griffin (Eds.), *Constructivist thinking in counseling practice, research, and train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Pinsof, W. M. (1981). Family therapy process research. *Handbook of family Therapy*, 1, 699-741.
- Philip J, Guerin, Jr. (1976).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Salvador Minuchin. (1979).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2-4.
-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9월 13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10월 01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10월 28일

The Trend Of Structural Family Therapy Research In Korea: 1991~2019

Yoo, Du-Ri

Hwa-Seong City Hal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by reviewing articles related to Structural Family Therapy and to provide fundamental materials for further study. A total of 26 published articles(KCI) from 1991 to 2019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 several ways. First, clinical-research articles(69.23%) were distinguished from non-clinical articles(30.77%). For research method, qualitative analyses(88.47%) were mainly used which was followed by the quantative analyses(11.53%). The results of this study clarified the importatnce of Structural Family Therapy and suggested that non-clinical research and integrated quan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for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Keyword : Structural Family Therapy, Research Trend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김 미 라* 하 영 윤**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 이해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2011~2020) 동안 국내 등재 학술지에서 중년기, 중년기 남성, 중년기 여성, 중년기 부부관계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들 중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한 논문 총 50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 대상별, 방법별, 변인별로 분석하고,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내용들을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의 의미를 Bowen의 가족체계이론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동향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적용한 내용분석 결과,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하위체계들의 관계성이 중년기 부부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또한 Bowen이 제안한 핵가족 정서체계, 자기분화, 삼각관계, 다세대전수 개념들이 중년기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의 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들이 가지는 함의를 탐색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중년기, 중년기 부부관계, 가족체계이론, 부모-자녀관계, 원가족관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미라(제1저자), 데이브레이크대학교 결혼과가족치료전공 박사과정,
Daybreak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310-739-0132,
E-mail : amen2120@naver.com

** 공동저자 : 하영윤,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연구 코디네이터.

인생의 모든 시기는 그 시기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의학의 발달로 현대 사회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기가 인간의 일생에서 차지하는 기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년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로서 가정이나 국가,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중년기는 이처럼 인생의 절정기이기도 하지만 신체적 노화, 생리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임선영, 2014)로 발달단계상 중요한 전환기적 특성을 지닌다. 중년기는 성숙기, 갱년기로 묘사되기도 하며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35세에서 65세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가 매우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오제은, 2013).

발달적 전환기로서 중년기가 가지는 잠재적인 취약성은 개인 내적인 문제로도 드러나지만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맞물려 더욱 가중되는 추세이다. 현대 중년기는 이전 세대와 달리 사회적인 역할이 다각화되고,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페미니즘 운동,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 내, 외부적인 변화들에 직면하면서 부부갈등과 이혼 등 중년기 부부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오제은, 2013). 한국의 중년 부부들은 자신의 삶보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시대에서 성장하였다. 이들이 성장한 사회는 남녀를 성역할에 가두어 남성에게는 가장이라는 책임의 굴레를, 여성에게는 모성과 동일시하여 삶의 영역을 가족과 자녀들에게 제한하도록 만들었다(고성희, 박은아, 김명애, 2014).

이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기 부부는 역할이 요구하는 책임에 집중하고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온 세대들로 배우자와는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를 지속해왔고, 중년기에 들어서 누적된 갈등이 드러나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유영주 외, 2018). 최근 국내 이혼에 대한 통

계를 살펴보면,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천 5백 건에서 2018년 10만 8천 7백 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중년기의 이혼은 10년 전에 비해 1.35배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특히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중년기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을 34.7%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통계청, 2019), 중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영역뿐 아니라 부부관계 측면에서도 '위기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중년층의 53.9%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답할 만큼 현대의 중년기는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의 리본(Re-born)세대로 불리며, 그동안의 의무와 부담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으려는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연합뉴스, 2018). 자녀들의 독립 후 부부로만 구성된 새로운 가족 형태의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재정의하고 역할을 다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변화는 갈등을 동반함으로 위기감을 야기하고,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년기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공감적 태도로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Cobb, Davila, & Bradbury, 2001), 결혼생활의 상처와 분노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는 부부는 오히려 우울로 발전해 부부관계의 질을 더욱 떨어뜨린다(권선주, 이정숙, 2018). 부부갈등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긴장 및 갈등을 말하는데(양영숙, 2008), 부부갈등이 높다는 것은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민하영, 2015).

중년기 부부관계의 갈등과 위기는 부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 또는 하위체계와 연관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중년기에 접어든 부부는 청소년기, 성인기에 진입하는 자녀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받게 되고, 수명의 증가로 예전보다 길어진 노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부담감은 중년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시대적으로 결혼과 가족가치관

이 변화하고, 여성의 경제참여와 교육수준 또한 높아지면서 여성과 자녀세대는 좀 더 현대적인 가족관을 지향하는 반면,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고집하는 남성들 사이에 성별, 세대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김유숙, 2015). Levinson(1997)은 인간은 성장하면서 세 번의 전환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 두 가지인 자녀의 청소년기 발달위기와 부모의 중년기 전환 위기가 중복되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다고 보고 이를 가족체계 전체의 발달적 위기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특히 자녀에 집중되었던 삶의 방식이 부부에게로 주의가 전환되면서 그동안 부부관계에서 누락된 갈등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의 위기경험은 중년기의 전환기적 취약성을 증폭시키고 중년기와 그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부부관계의 갈등과 관계의 질은 부부관계 자체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 내 다양한 관계 맥락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된 현대사회에서 중년기 부부관계의 건강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개관하여 그 결과들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년기 부부관계가 가족 내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기 부부관계를 가족체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것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입방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술적인 연구 동향 분석과 함께 내용 분석의 과정에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가족체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회 변화에 부합된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고,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의 내용을 Bowen이 제안한 가족체계 모델을 적용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은 인간의 문제를 접근하는 가족치료 모델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견해를 가진 이론으로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사회구조에 적응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현재 가족 관계 사이에 있는 상호성이 과거 개인의 경험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접근방법이다(송성자, 1995). Bowen은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emotional unit)로 보고, 상호 맞물린 관계로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율적인 심리적 개체로 기능하기 보다는 가족관계 체계 내에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관계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여러 하위체계들과 상호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이주연, 정혜정, 2003). 세대관계는 부부관계에, 부부관계는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재구성하는 틀로서 적용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가족 정서체계 (Nuclear Family Emotional)

핵가족 정서 체계는 다세대적 개념으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학습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며, 결혼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인 장을 다

세대에 걸쳐 반복함을 의미한다(Kerr & Bowen, 1988/2005). 핵가족 정서체계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체계로서 여기고, 정서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긴장과 불안을 개인이 가족에게 투사하는 패턴을 말한다.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부부일수록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한 불안을 느껴 드러내고 다투기, 정서적 거리두기, 과잉기능/과소기능 하기, 자녀에게 투사하기 등의 반사행동을 하게 된다(이영분 외, 2010).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체계적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

자기분화 (Differentiation of Self)

또 하나의 주요 개념인 자기분화는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고 감정과 정서를 지적 체계인 사고에 의해 잘 통제하고 분별하는 능력수준을 말한다(박진영, 박태영, 2010). Bowen은 자녀가 성장하며 양육자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자기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err & Bowen, 1988/2005). 자기분화의 목표는 정서적 개체화 되어 부모와의 애착으로부터 분리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분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율성과 융통성이 부족하고 타인의 정서반응에 융해되기 쉽고, 의존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킴으로 의식적으로 객관화,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이영분 외, 2010). 부부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친밀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만 반대로 낮은 분화 수준의 부부는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더 의존

하고 만성적인 불안으로 부부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박경순, 2009). 정혜정과 조은경(2007)은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정서체계로부터 지적체계의 분화가 어려워 부부 간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에 직면하면 폭력 등 부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 결혼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시사하였다. 원가족 관계에서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배우자와 자신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갈등을 경험하며, 낮은 분화 수준의 중년여성은 자녀의 분리, 의존에서 자녀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자녀와 친밀감이 줄어들 때 부모는 외로움을 더 느낀다. 자녀와의 관계는 중년 부모의 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낮은 분화수준은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Mizumoto, 2018).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서 학업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중년기 위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한국사회의 중년기 부부는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높아 낮은 분화수준이 사고욕 열풍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삼각관계 (Triangles)

삼각관계는 Bowen이론의 또 다른 핵심개념으로 가족 내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삼인체계의 정서적 역동성을 의미한다(Kerr & Bowen, 1988/2005). 삼각관계는 불안정한 이인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기분화 수준이 낮고 긴장이 심할수록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부부가 갈등을 경험할 때 불안한 부부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삼각관계의 속죄양으로 끌어들인다. 부부는 비슷한 분화수준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는데 특히 낮은 분화수준의 부부는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한 정서를 자녀들에게 투사시킴으로 삼각관계 희생양으로 삼는다(Goldenberg & Goldenberg, 2012).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7). 삼각관계 형성은 감정 반사적 행동패턴으로, 분화수준이 낮은 부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사람이 거리두기를 하면 상대 배우자는 애착불안을 자녀와 밀착함으로 해소하려 한다. 그 결과 자녀는 부모보다 더 낮은 분화수준을 갖게 된다. 삼각관계 대상은 문화적 요소, 부모의 원가족 형제순위, 원가족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며 일정한 형식과 관계 패턴은 단단하게 고정된다(이영분 외, 2010). 삼각관계 희생양이 되는 투사대상 자녀는 성별, 부모의 불안수준, 부모와의 감정적 친밀도에 따라 선택되어 정서적 공생관계를 갖게 되는데 한쪽 부모는 그런 관계를 지지하거나 회피하면서 관계를 강화, 유지시킨다(송정아, 최규련, 2002). 이러한 문제는 미분화 수준, 원가족과의 정서적 단절 정도, 체계에서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있는데 한국의 남아선호사상 같은 문화적 요인도 투사대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세대 전수과정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이 개념은 가족 내의 정서적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을 넘어 후대에까지 대물림되는 현상으로, 가족의 정서체계에 근간을 둔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승된 정서, 감정, 그리고 주관적으로 결정된 태도, 가치와 신념을 포함한다(Kerr & Bowen, 1988/2005). Bowen은 다세대 전수과정의 개념을 통해 정서문제는 개인을 넘어 가족, 그리고 핵가족을 넘어 다음세대로 전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병인, 2000). 최현미(1997)는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기대가 상이하거나 배우자의 한쪽이 자신의 원가족과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를 갖고 비합리적인 정서체계에 융합될 때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배우자의 한쪽이 원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원가족과의 미해결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며 부부관계를 통한 다세대 전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세대 전수개념은 부부의 역할 기능과 관계 이해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이 연구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원가족의 부모관계는 성인 자녀의 자기 효능감과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성인자녀의 행복과 자기 성취에서도 인과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검증되었다(박영신 외, 2018). 이러한 결과는 국외의 중단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Savelieva, Keltikangas-J, Pulkki-R, Jokela, Lipsanen, Merjonen, Viikari, Raitakari와 Hintsanen(2017)에 의하면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받았던 정서적 따듯함과 수용의 정도는 28년이 지난 후 성인의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확인되었고, Friesen, Woodward, Horwood와 Fergusson(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애정, 감정교류가 있었던 경우 15년이 지난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질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가족의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할수록 적대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연은경, 김영희, 2014). 반면, 높은 분화수준을 보이는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은 자녀의 이성관계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부부관계를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재연하였으며(남순현, 한성열, 2003; 하상희, 정혜정, 2008),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은 부부의 적응력(김승희, 2004), 결혼적응 수준(권정란, 2005)을 높이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주요한 개

넌들은 부부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통찰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과 이론적 틀을 제공해줄 수 있음에도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개념들을 적용한 연구들은 충분하지 않다. 제한된 연구이지만 40대 연령층이 30대 연령층보다 가족의 적응력과 결속력이 낮으며, 결혼기간이 20년 이상 된 집단이 유의미하게 가족기능이 낮은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김경자, 2003)나 중년기에 나타난 가족 분화경험이 기혼 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유희남(2011)의 연구에서 40세 이상인 경우 40세 미만보다 원가족에서 가족투사와 정서적 단절의 경험을 낮게 지각하고 부부갈등 상황에서 회피행동 많이 보인다는 결과에서 시사하듯 중년기 적응과 부부관계의 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족체계적인 관점의 적용은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문화는 가족 응집력을 강조하는 문화로 가족을 동고동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빚어지는 갈등과 문제점이 많고, 이것이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은 한국의 가족을 잘 설명하는 가족치료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박진영, 박태영, 2010).

한편, 원가족 건강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구문화와 한국문화에서 차이가 있다. 원가족과의 가족관계가 핵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점은 동일하나, 건강성의 측정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서구문화권에서는 독립성과 개별성 그리고 자율성을 건강성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조화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규정하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건강성의 특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진달남, 2008). 따라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세대 간, 부부 간, 가족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점이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시대의 중년기 부부를 이해하고, 그들의 부부관계와 연관 있는 변인들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현재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추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문헌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2020년 최근 10년 동안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학술지정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중년기 남성', '중년기 여성', '중년기 부부관계' 등의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연구 목적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성이 연구변인, 혹은 연구주제로 나타난 논문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고, 개인 성격 특성을 반영한 연구, 노후 불안, 스트레스 등의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 중, 중년기 남성 혹은 중년기 여성에 국한되어 연구된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50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논문들을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하고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등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실수와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이후 내용 분석에서는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인들로 묶어 정리하고 그 결과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핵가족정서체계’, ‘자기분화’, ‘삼각관계’, ‘다세대 전수과정’ 등의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결과의 내용들을 재정리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결 과

1.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 동향

1) 연구 시기별 동향

표 1은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최근 10년간의 연구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중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년이 9편(18%)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2018년에 8편(16%), 2014년, 2016년에 둘 다 6편(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2) 연구 대상별 동향

표 2는 수집된 분석 논문들의 연구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부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부부는 아니나 남, 여를 함께 연구한 논문들이 가장 많았고(각각 32%), 다음으로는 중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5편으로 30%에 해당하였다. 중년기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3편으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표 3은 분석 대상이 된 논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중년기의 기준을 분류한 것이다. 각 연구마다 시사하는 중년기의 정의가 다양하여 통합적인 통계적 수치보다는 논문별로 연령범위와 그 연령으로 중년기를 분류한 기준들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최미란(2020)은 중년기를 40세에서 55세로 정의했으며, 김희정, 김용수(2017), 문선희(2015)

등 다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박수정, 1992; 유지영, 1996; 박현숙, 2002)를 언급하며 중년기를 생활연령 40세~59세로 보았다. 구혜진, 서미아(2017), 문상정(2018), 김혜원 외(2017)는 Jung의 삶의 전환기, Erikson의 발달과업, Levinson의 신체적 노화 등을 종합하여, 중년기를 40세~60세로 정의하였다. 류민영, 정현숙(2019)은 최정혜(2015)에 의해 설명된 첫 자녀의 사춘기 시작부터 막내 자녀의 결혼 혹은 본인의 은퇴시기인 가족생활주기를 토대로 중년기를 정의한 후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40세 이상이고 결혼 유지기간 10년 이상으로 중년기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전경숙과 정태연(2013)은 Jung과 Levinson, Erikson의 개념을 사용해 중년기 특성을 살펴본 후 막내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인 여성을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박주희(2018)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대한 정의를 가족 주기적 관점, 개인적 발달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 따라 설명하고, 45세에서 은퇴 및 사회적 역할이 축소 시기인 64세로 정의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방법별 동향

표 4는 최근 10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중년기 부부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들을 정리한 것이다. 질적 연구(10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39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양적 연구 중에서는 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회귀분석 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 10년의 연구들에서는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연구보다는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변인들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비롯하여 구조방정식모형 기법을 이용한 연구들(11편),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어떤 경로로 효과

표 1.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 시기별 동향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논문수(편)	3	5	4	6	9	6	3	8	3	3	50
비율(%)	6	10	8	12	18	12	6	16	6	6	100

표 2.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 대상별 동향 (성별기준)

대상	중년기 부부 쌍	중년기 여성	중년기 남성	중년기 남, 여	계
논문수(편)	16	15	3	16	50
비율(%)	32	30	6	32	100

표 3.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 대상별 동향 (연령기준)

분석 논문	연구대상 연령범위	분류 기준
최미란(2020)	40세 ~ 55세	생활연령, 가족생활주기 (막내자녀 사춘기,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
김희정, 김용수(2017), 임인숙, 백수경(2015), 김두길, 유영달(2015), 윤운하, 김현주(2018)	40세 ~ 59세	
구혜진, 서미아(2017), 문상정(2018),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2017), 정은정, 서미아(2020), 김혜원, 한소영, 이지연(2017), 문선희(2015)	40세 ~ 60세	
이승화, 민경화(2015)	40세 ~ 65세	
박주희(2018)	45세 ~ 64세	
김고은, 김기용(2020)	50세 ~ 64세	
한지화, 박부진(2016)	50세 ~ 65세	
전경숙, 정태연(2012)	막내자녀 고등학교 이상	가족생활주기
류민영, 정현숙(2018)	결혼기간 10년 이상, 부부 중 한 사람이 40대이상	

표 4.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 방법별 동향

	연구 설계	논문수(%)	소계(%)
질적연구	사례연구	2(4)	10 (20)
	문헌연구(이론고찰포함)	2(4)	
	근거이론	1(2)	
	존재론적 탐구	1(2)	
	내러티브	2(4)	
	현상학	2(4)	
양적연구	상관연구, 군집비교	2(4)	39 (78)
	회귀분석	16(32)	
	경로분석	6(12)	
	구조방정식모형	11(22)	
	요인분석, 척도개발	3(6)	
	중단연구	1(2)	
	준실험연구	1(2)	
혼합연구 (양적+질적)		1(2)	1(2)

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6편)이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과 함께 양적 연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처치의 효과성을 증명하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진 준실험연구가 1편, 중단연구가 1편 있었다. 한편,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총 10편으로, 사례연구(2편), 문헌연구(2편), 근거이론과 존재론적 탐구(각 1편), 내러티브와 현상학(각 2편) 등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변인들과 경험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 혼합 연구도 1편 있었다.

4) 연구 주제(관련변인)별 동향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적 분석으로 각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표 5는 그 변인들을 가족관계 특성, 부부관계 특성, 개인 특성으로 분류하여 나타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관계에서는 현재의 중년기 부부와 그 자녀와의 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 친밀도 등이 주로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을 파악하는 독립 변인으로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모녀관계, 모자관계, 장서관계, 고부관계 등 중년기 부부가 그 원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양상이 현재의 부부관계와 가지는 관련성에 대한 탐색도 3편의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부부관계 특성으

표 5.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 주제별 동향 (중복측정)

구분	변인	논문수(%)	소계	변인 사용
가족관계 특성	부모-자녀 관계	5(6.5)	8(10.4)	독립, 매개
	원가족 관계 (노부모-성인자녀)	3(3.9)		독립
부부관계 특성	부부갈등	8(10.4)	29(37.6)	독립, 종속
	부부친밀감	4(5.2)		독립, 종속, 매개
	결혼만족도	12(15.5)		독립, 종속, 조절
	의사소통	4(5.2)		독립, 매개
	배우자지지	1(1.3)		조절
개인 특성	애착유형	6(7.8)	40(52.0)	독립
	스트레스	7(9.1)		독립, 종속
	우울	6(7.8)		종속
	여가	3(3.9)		독립, 조절
	종교	4(5.2)		독립, 조절
	은퇴불안, 노화불안	4(5.2)		종속, 매개
	직업효능감	2(2.6)		독립
	인지-정서조절전략	2(2.6)		매개, 조절
	심리적 안녕감(웰빙)	2(2.6)		종속
	성역할태도	1(1.3)		매개
	회복탄력성	1(1.3)		매개
	외로움	1(1.3)		매개
	용서	1(1.3)		매개
계		77(100)		

로는 부부갈등, 부부친밀감,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방식이나 특성, 배우자의 지지 등이 연구 변인으로 다루어졌는데, 그 중 부부관계의 질을 대표할 수 있고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혼만족도가 가장 빈번하게 탐색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가족관계의 특성이 반영되는 결과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우울과 같은 다양한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탐색되기도 하였으며, 은퇴불안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개인 특성에 매개변인으로서 영향력이 설명되기도 하였다. 개인특성으로는 회피/불안 애착유형(6편),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7편), 우울(6편) 등이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변인들로 나타났다. 중년기 발달과제와 맥을 같이하여 은퇴나 노화에 대한 불안도 4편의 논문에서 변인으로 사용되었고, 성역할태도, 회복탄력성, 외로움, 용서 등이 소수지만 중년기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2.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 내용 분석 (주요 변인별)

1) 부모-자녀관계 변인

분석 대상이 된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중년기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 관계의 질이 결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주희, 2015).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계성에 대한 연구(문선희, 2015)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는 아내가 높았으며,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에서는 남편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아내는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자녀와의 감정적, 심리적 친밀감을 통해 관계만족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년여성은 자녀와의 분리, 의존사이에서 자녀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특히 발달단계상 큰 전환기를 맞는 중년여성과 청소년 자녀의 시기가 겹치게 될 때 위기가 심화되는 특성이 있었다(서수균, 전지혜, 안정진, 정영숙, 2015; 문선희, 2015; 김두길, 유영달, 2015). 또한, 남편과 자녀가 친밀한 관계일 때 아내의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의 부모 관계 만족과 부부의 결혼 만족에 대한 정적 상관과도 부합되는 결과이다(문선희, 2015). 한편, 부부갈등에 따른 중년 부모의 외로움은 자아 정체성 형성시기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년의 우울과 외로움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자녀 체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를 받아들이고 부부의 노력으로 외로움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김동훈, 기쁘다, 2019). 자녀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서는 중년기 여성(어머니)이 남성(아버지)보다 자녀의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전통적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빈번하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땅하게 간주하며 자녀들도 어머니를 더 친밀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은 중년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의 질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원가족관계 변인

중년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가족에서 습득된 상호작용 방식은 자녀세대에 그대로 전수 되어 반복됨을 보이고 있다. 원가족 경험은 가족 기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현재 가족기능도 건강하게 작용하였다(이준선, 2014; 박형원, 2015). 또한 원가족 경험이 따뜻하고 지지적이었다고 지각한 중년여성들은 현재 삶의 의미수준이 높다고 보고(한지화, 박부진, 2017)하였고, 중년여성이 친부모를 부양하며 겪는 심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박종환, 신승욱, 2018)를 통해 중년기 부부에게 원가족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한편, 중년기 부부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남편의 가족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아내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시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길, 유영달, 2015). 노부모의 간병 등에 대한 신체적 지원은 기혼의 딸의 경우 친부모보다 시부모에 대한 비중이 더 컸다(정경희 외, 2012).

그에 비해 남편의 경우는 자신의 노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결혼에 대한 만족이 컸으며, 아내와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노부모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과 낮은 결혼생활 만족도가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서로 높을 때 부부는 감정적으로 친밀하고 의사소통이나 의견일치가 잘 이루어지며 높은 결속력으로 건강한 자녀양육과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문선희, 2015)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장서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도 있었다(박인아, 2012; 전세송, 김수경, 2012; 류민영, 정현숙, 2019).

3) 부부친밀감과 성인애착변인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정희숙, 2013), 심리적 안정감으로 노화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자녀의 안정애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재연, 김지현, 2014). 중년기 기혼 여성의 경우 회피 애착이 부부친밀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불안애착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회피애착은 배우자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부친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였으며 부부가 모두 회피-회피애착 유형일 때 부부 친밀감이 가장 낮았다(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정은영, 서미아, 2020). 회피 애착의 특징은 배우자에게 거절감을 느끼고 결혼에 대한 불만과 절망을 쉽게 느끼며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배우자 애착 유형의 조합에 따라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친밀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상담 진행 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정은정, 서미아, 2020). 가족관계에서는 친밀감 뿐 아니라 갈등 또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증거로 볼 수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동안 의사소통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어났다. 반대로 더 이상 가족에게 바라지 않게 될 때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은 가족 상호작용이 취약성의 결과가 아니라 상호의존성의 복잡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류민영, 정현숙, 2019).

4) 부부 결혼만족도 변인

중년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만족도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관계가 평등할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김나영, 정영숙, 2011).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

도 또한 상승하였으며 부부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되었다(정희숙, 2013). 결혼만족도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생활스트레스는 결혼 만족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남녀의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최승미, 김지연, 2016; 김두길, 유영달, 2015). 남편의 높은 결혼만족도에 아내의 감사표현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게 감사표현을 할 때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김선미, 2016). 성인애착유형과의 연관성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배우자가 안정애착인 경우, 상대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배우자를 잘 보살피며 높은 결혼만족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아내보다 남편의 안정애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김나영, 정영숙, 2011). 높은 애착불안은 역기능적 의사소통행동을 통해 결혼만족을 하락시켰고(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김고은, 김기용, 2020),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반추는 결혼 불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데 노인대상보다 중년기 결혼 불안정성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김고은, 김기용, 2020). 한편, 결혼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 안정성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기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황혼, 졸혼으로 결혼을 끝내는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로 논의되었다(윤운하, 김현주, 2018). 결혼만족도가 높은 중년여성들의 경우,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약화와 성관계 감소를 체험하고는 있으나 그로 인해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윤운하, 김현주, 2018).

5) 우울, 스트레스 변인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가족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하위요인인 건강, 재정, 가사, 자녀문제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남편은 직장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에 더 관심을 갖는 반면,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된 과업으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하면서 생활사건에 더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김두길, 유영달, 2015). 한편, 부부 모두 가족 스트레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요인으로 부부문제를 보고하였는데 남편은 부부문제를 가족문제 중 하나로 인식한 반면, 아내는 가족관계 문제 중 부부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부부관계 문제를 바라보는 중년 부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었다(최승미, 김지연, 2016). 이 차이는 중년 남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남성의 가족관계영역에서 자녀교육문제가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여성은 부부관계가 우울 등 정신 건강에 더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김두길, 유영달, 2015). 우울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킨 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모두 높을 때 부부의 우울이 감소하였다(최승미, 김지연, 2016;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2017). 부부는 가장 가까우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많은 환경적 요소를 공유하는데, 남편은 가족관계 중 가장 가까운 아내의 스트레스에 공감하면서 우울이 증가한 반면, 중년의 아내는 남편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 하면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2017). 중년 여성의 부부원신이 높아지면 우울이 감소하고, 부부열정이 높아지면 우울 또한 높아졌는데 건강한 부부관계는 중년기 우울에 의미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박혜경, 최태산, 2012). 그에 비해 자녀와

친밀감이 높아지면 우울 낮아지고, 자녀와 분리감이 높아지면 우울은 증가하였다(박혜경, 최태산, 2012). 중년 여성의 가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낮아지고 자기 성찰지능이 낮아지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이강진, 김영희 2018).

3.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한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 내용 분석

지금까지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변인(주제)별 분석 내용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주요 개념 중 분석된 연구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틀로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네 가지 개념 - '핵가족 정서체계', '자기분화', '삼각관계', '다세대 전수과정'-을 선택하였고, 이에 비추어 대상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핵가족 정서체계

모든 가족구성원들은 핵가족의 정서체계 속에 지금 - 여기에 살아 존재하며, 그래서 그 가족의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핵가족 정서체계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체계로 보는 것으로 핵가족 정서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긴장과 불안을 개인이 가족에게 투사하게 된다. 가족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핵가족 내의 정서기능의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러한 개념의 이해가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중년기 여성의 부부관계의 질이 우울과 외로움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고(김두길, 유영달, 2015; 박혜경, 최태산, 2012; 김동훈, 기쁘다, 2019), 남편 또한 아내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우울이 증가했다(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2017). 중년기 여성의 가족 스트레스는 삶의 의미 수준을 낮추었을 뿐 아니라 자기 성찰지능을 저하

시켰다(이강진, 김영희, 2018). 한편, 원가족의 건강성과 원가족으로부터의 자기분화는 부부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최미란, 2020)에서도 가족은 하나의 정서체계로 핵가족 내에서 가족원들 사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의 상호작용에서 불안의 정도가 높아지고 가족이 불안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배우자의 질병,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이 자녀에게 전이되면서 역기능적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개념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 정서과정으로 부부갈등의 영향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은 가족 내 긴장의 증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부부가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합의점을 찾지 않으려는 미성숙한 행동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주었다(문상정, 2018). 부부 갈등으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과묵화 등 부적응적 패턴을 자주 사용하였고 가족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상황을 왜곡해 인식하면서 가족의 불안을 증가시켰다(김두길, 유영달, 2015).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기분을 알아차리고 과도하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하거나 부모 중 한쪽 편을 지지하면서 부모의 정서에 반응한다. 부모-자녀의 갈등 시 정서적 단절의 양상으로 갈등이 진행되는 경우 우울을 느낄 수 있으며 자녀와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중년의 부부는 자녀와의 관계를 상실의 형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은 부부의 결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은 하고 있음이 나타난 연구(김동훈, 기쁘다, 2019; 박주희, 2015)에서도 하나의 정서적인 장(emotional field) 안에서 정서적인 힘에 의해 상호 반응하는 가족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자기분화

분화수준은 변화의 상황 속에 초래된 긴장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힘으로 가족이나 개인의 분화수

준은 가족 적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가 성장할 때 가족 간의 정서적 분리의 정도는 자녀의 자기분화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분화수준이 낮은 부부, 가족은 정서적으로 가족관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의 자녀들은 중년의 부모들과 정서적 거리유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부모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리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외로움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들에 따르면 분화 수준이 낮은 중년여성은 자녀의 분리, 의존에서 자녀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거리감을 둘 때 부모는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김동훈, 기쁘다, 2019)을 보더라도 미분화된 가족의 자녀와의 관계가 중년 부모의 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분화 수준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보면, 시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김두길, 유영달, 2015)나 남편이 자신의 노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부부의 결혼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문선희, 2015)를 자기분화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우자가 원가족과 정서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문선희, 2015). 이와 함께 중년기 부부의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때 장서관계의 만족도가 높았고, 고부관계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박인아, 2012; 류민영, 정현숙, 2019)으로 나타난 결과도 역관점에서 자기분화를 적용해볼 수 있다.

자기분화는 타인과 친밀감을 갖는 동시에 자율성을 갖는 능력으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부부는 친밀감을 잘 형성하여 결혼의 안정성을 갖는 반면,

가족이 하나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부부의 만성적 불안은 부부갈등으로 나타난다. 낮은 분화수준을 가진 사람은 매우 의존적이나 거리두기를 통해 불안을 다루는데 중년기 부부의 애착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높은 수준의 회피애착은 배우자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부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부부가 모두 회피 애착일 경우, 부부의 친밀감이 가장 낮았다(김혜원, 한소원, 이지연, 2017; 정은영, 서미아, 2020). 불안애착보다 회피애착이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회피애착은 배우자에게 거절감을 느끼고 결혼에 대해 불만과 절망감에 거리두기를 하였다(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최미란(2020)은 자기분화를 통해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중년기 여성의 이혼 위기감 해소는 원가족 또는 남편과의 정서적 분화와 개별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자기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말지를 숙고하여 결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불안에 덜 반응하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관계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 연구에서 분화수준이 높은 가족 및 부부를 반영하는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부부친밀감을 보인 부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며(정희숙, 2013), 자녀의 안정애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임재연, 김지현, 2014).

3) 삼각관계

삼각관계는 가족 내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삼인체제의 정서적 역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분화 수준이 낮고 긴장이 심할수록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개인의 분화수준이 낮아 가족 구성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서로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개별성을

저해하고, 이인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 사이의 갈등에 관여하게 되면서 삼각관계를 이룬다. 부부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통해 보상받기 원하는 결과(문선희, 2015)에서도 부부간에 불안이 증가하면서 부부 중 더 불안한 사람이 자녀를 끌어들이며 두 사람의 긴장에 관여시킴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삼각관계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감정적, 심리적 친밀감을 통해 관계 만족을 하였으며, 자녀의 의미에 대해서도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에게 더 의미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불안이나 긴장을 다루는 방식으로 삼각관계가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삼각관계는 가장 불안정한 관계체계로써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오히려 가족 정서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여 문제 증상을 나타내게 한다. 이러한 증상은 원가족과, 핵가족 내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부모-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내가 만족도가 높은 반면,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나 아내가 남편보다 자녀문제에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고(김두길, 유영달, 2015), 아내는 결혼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자녀와의 친밀감을 통해 만족감을 취했다(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는 연구들은 다세대에 걸쳐 다양한 삼각관계의 양상이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의 시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문선희, 2015)는 결과에서 반영되듯 부부간 결혼만족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부모가 갈등 시 자녀를 정서적 공생관계로 끌어들이며 불안을 경감시키고 회피함으로 관계를 강화시키고 삼각관계의

희생자가 되었던 자녀는 결혼을 하면서 이러한 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삼각관계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4) 다세대 전수과정

다세대 전수과정은 가족 내의 정서적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을 넘어서 후대 가족에까지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다세대 전수과정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삼각관계에 의해 연결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아분화 수준과 만성불안의 정도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외부 자극이 작을 때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역기능적 초점이 집중된다. 분석된 연구들을 통해서도 가족의 투사과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다. 아내는 결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자녀중심으로 살았던 중년 여성은 자녀와 의존, 분리 사이에서 갈등을 더 경험하고 청소년 자녀들과 발달적 위기가 겹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한편,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년기 남성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지만 아내와 합의되지 않을 때 결혼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세대를 이어 전수되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부부가 원가족과 분화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불안이 가중되었다(문선희, 2015).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자녀 양육에 더욱 적대적인 경향을 보인 연구(연은경, 김영희, 2014)도 이러한 세대의 전수과정을 통해 이어지는 역기능적인 패턴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우울과 외로움은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동훈, 기쁘다, 2019)도 원가족의 정서 문제는 개인을 넘어 가족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정서적 장애로 보는 다세대 전수과정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당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인과 연구 결과들을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함으로써 추후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논문 중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논문 50편을 선정하여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별로 분석하고, 내용 분석 결과를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주요 개념들에 비추어 재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간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9편과 8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최소 매년 3편 이상의 논문이 등재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 부부, 가족관계를 다루는 논문들에 비추어 그 양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중년기가 생애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발달단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며, 그러한 중년기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부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여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해부터 시작된 Covid-19의 장기화로 부부들이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나 자극을 접할 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 팬데믹의 결과로 경험되는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의 영향, 실직 등의 경제적 위기 등으로 부부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의 필요성은 더 강조된다.

둘째, 연구 설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양적 연구(78%)가 질적 연구(20%)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 분석 등이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변인들이 보다 다각적, 다층적, 다방향적 측면에서 관련성이 설명되었다. 질적 연구도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사례 연구, 내러티브, 근거 이론, 현상학, 문헌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한국과 다른 나라간의 비교 연구, 한 가지 변인에 대한 종단 연구,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혼합된 연구들도 1편씩 발표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분석된 논문들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중년기 부부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변인들의 관련성은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변인들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들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가진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혼합 연구를 통해 중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주제를 살펴본 결과, 사용된 변인들은 가족관계 특성, 부부관계 특성, 개인 특성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고, 가족관계에서는 중년기 부부와 그 자녀와의 관계, 중년기 부부와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주요 변인으로 탐색되었다. 부부관계에서는 결혼만족도가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변인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과 의사소통, 부부친밀감 등이 관심 변인들로 연구에 사용되었다. 개인 특성에서는 애착 유형과 스트레스, 우울 등이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한 변인들이었다. 중년기의 발달 특성상 은퇴나 노화와 관련된 불안도 연구 변인으로 나타났고, 여가와 종교, 직업효능감, 인지-정서 조절전략, 심리적 안녕감 등도 중년기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용된 변인들이었다. 한편, 서구의 부부관계 연구에서는 성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 대상 논문들 중 성관련 변인을 다룬 논문은 1편에 불과하였다. 송정아(2001)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성 관련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중년기는 성역할 변화 등 현대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년기 부부의 성문제는 은폐되어온 주제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을 비롯한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다루어지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상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년기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중년기 부부와 그 자녀와의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특성이 중년기 부부관계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스트레스 등 개인 특성 변인들도 부부관계나 부부-자녀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부관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여러 하위체계들과 상호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보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이 유용한 이해의 틀이 될 수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중년기 부부관계에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영향을 주었고, 부모의 관계의 질은 부모-자녀 관계에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면서 자녀 또한 부모의 불안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연구 내용들은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었다. 내용 분석의 또 다른 결과,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장서관계 만족도가 높았

으며 고부관계의 스트레스도 덜 받았다. 중년여성의 시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아내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원가족과 잦은 연락과 만남은 양가감정을 더 많이 경험케 하였다. 이는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을 통하여 중년기 부부관계의 특성과 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남편 자신은 아내를 통해 효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인 관계 패턴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Bowen의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편은 자신의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정서적 단절을 시도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중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해한다면 보다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년기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이 시사되는 바, 중년기 부부관계를 가족체계이론의 중요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들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체계이론의 각 개념들이 중년기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한국사회의 중년기 부부에게서는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다각적인 질적 접근도 시도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대상들을 고려하면 중년기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하였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들도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분류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40세부터 시작해 65세까지 중년기를 정의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취업을 위한 유예기가 길어지고, 자녀 출산의 시기도 점차 늦어지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연령에 따른 기계적인 분류는 그 연령대가 가지는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생애주기나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분류도 지금의 시대

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중년기 경험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중년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중년기 부부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수행된 연구 내용들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중년기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Bowen의 가족체계론 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들로 검증된 적절한 참조 기준을 찾지 못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임의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보다 검증되고 객관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가 가진 한계라 하겠다. 추후 전문가 중심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Bowen의 이론을 반영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의 틀을 발달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만을 살펴본 것이다. 국내와 국외의 연구 동향을 함께 비교한다면 중년기 부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주제와 모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owen의 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사회가 가지는 적용성과 특수성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는 토착화된 부부 및 가족체계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병인 (2000).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으로 본 S부부의 사례연구. **한세대학교 교수논총**, 16(-), 98-125.
- 고성희, 박은아, 김명애 (2014). 중년기 여성의 성

- 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 Q방법론적 접근.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449-456.
- 권정란 (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선주, 이정숙 (2018). 대학생의 분노반주가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노 경험 및 분노 표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3), 1-19.
- 김경자 (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희 (2004). **신학생 부부의 원가족건강성 지각과 갈등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 (2015). 관계회복을 위한 정서교육. **상담과 지도**, 50(-), 103-114.
- 남순현, 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 민하영 (2015).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부갈등에 대한 회피적 대처행동의 영향: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2), 131-143.
- 박경순 (2009). 결혼 갈등의 대상관계 이론적 이해.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 105-118.
- 박영신, 안자영, 남인순, 유효숙, 이영남, 차연실 (2018). 중년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153-192.
- 박진영, 박태영 (2010).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부모-자녀 간 "대화 장벽" 허물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49-174.
- 송성자 (1995).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송정아, 최규련 (2002).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서울: 하우.
- 양영숙 (2008).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오제은 (2013). 중년,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현상과 인식**, 37(3), 141-166.
- 유영주, 김순기, 노영숙, 박지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이영자, 한상금 (2018). **변화하는 사회의 가족학 2판**. 서울: 교문사.
- 유희남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은경, 김영희 (2014).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9(3), 509-527.
- 이영분, 신영화, 권진숙, 박태영, 최선령, 최현미 (2010). **가족치료 모델과 사례**. 서울: 학지사.
- 이주연, 정혜정 (2003).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13.
- 임선영 (2014).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정서 조절곤란이 폭식과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18. 6. 19). 5060세대 54% "내가 가장 소중" ... 키 워 드는 '리 본 (Re-born)'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9057800002?input=1195m>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5(1), 19-46.
- 진달님 (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가족건강성 및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동

- 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 (1997). **원가족 척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9). 이혼통계결과. <http://kosis.kr>.
- 하상희, 정혜정 (2008). 가족상담: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Davila, J., Cobb, R.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31 - 1143.
- Friesen, M. D., Woodward, L. J., Horwood, L. J., & Fergusson, D. M. (2013).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ce and later adult parenting outcomes. *Social Development*, 22(3), 539-554.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12).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up, CA: Brooks/Cole.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7).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Family Evaluation*) .(남순현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8년 출판).
- Levinson, D. J. (1997).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Impotence Research*, 23(0), 135-141.
- Mizumoto, M. (2018).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their emerging adult childr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intimacy.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2), 111 - 126.
- Savelieva, K., Keltikangas-J., L., Pulkki-R., L., Jokela, M., Lipsanen, J., Merjonen, P., Viikari, J., Raitakari, O. T., & Hintsanen, M. (201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qualities of the parent - child relationship in the population-based Young Finns Stud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4), 416 - 435.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9월 14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10월 10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10월 28일

An Analysis of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 : With Application of Bowen's Theory of Family Systems

Kim, Mi-Ra Ha, Young-Yoon

Daybrea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on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 and to provide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Through 2011 to 2020, a total of 50 published articles that fit this study were selected by searching with keywords: 'middle age', 'middle-aged men', 'middle-aged women', and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 from Korean registered journals. To review the trends, the selected studies were analyzed based on research period, subject, method, and variables. Later, Bowen's Theory of Family Systems was suggested to be useful in the understanding of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 and was applied to reorganize the variables and contents of these articles. This analysis and reexplanation were used to establish a new understanding of meanings of researches in the perspective of Bowen's Theory of Family Systems. Research trend analysis revealed that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 studies were conducted steadily past ten years and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at relatively high frequency compared to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with application of Bowen's Theory of Family Systems showed that most important variables to understand the middle-aged married couple were not the individual, but their relationships with various subsystems. Additionally, main concepts of Bowen's theory were proved to be meaningful in the understanding of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Middle-Age,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 Theory of Family Systems, Parent-Child Relationship, Family-of-Origin Relationship

중년기 이혼남성의 자기개념 변화에 대한 단일 사례연구

정 영 주* 조 미 애**

경희대학교 해누리센터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느끼는 중년기 이혼남성의 사례연구로 미술치료가 중년기 이혼남성의 자기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는 3년 전 이혼을 경험한 40세 중년남성으로, 주 2회 90분씩 총 22회기에 걸쳐 미술치료를 진행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성신자기개념 검사와 동적 가족화(KFD), 이야기 그림검사(DAS)를 실시하였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매 회기 녹음 및 전사한 축어록, 수퍼비전 자료, 연구자의 관찰일지, 참여자의 감정노트, 미술작업 및 작품사진 자료, 사전사후 면담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성신자기개념검사의 구성요소인 자기존중감, 정서안정감, 대인신뢰감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결과, 미술심리치료적 접근이 자신의 억압된 부정적 정서를 건강하게 발산시켜 내면의 욕구를 해소하고 분노에 대한 내적통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줌으로써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중년기 이혼남성의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로 이혼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자료가 되어 임상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중년기, 이혼남성, 자기개념, 미술치료, 사례연구

* 제 1저자 : 정영주, 경희대학교 가족학 박사과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미애, 해누리 센터 소장, (1683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0번지 5층,
Tel : 031-896-8886, E-mail : joma1004@hanmail.net

우리는 누구나 가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생활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정옥분, 2008).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서구식 가치관의 무분별한 유입, 여성의 사회 진출 등 사회·문화적 변화는 가정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며 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이혼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최근에는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면서 중년기 이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Berk, 2009).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 시각에서의 이혼은 부부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삶을 찾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며 오히려 이혼 후에 건강 상태가 증진되었거나 감정적인 혼란을 경험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nvinger, 1979). 하지만 이혼은 여전히 여러 가지 실질적 어려움을 동반하며 단순한 하나의 일상적인 사건(event)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위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노정자, 2011). 이는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는 물론 및 이혼 이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2005).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중년 남성은 사회생활이나 직업보다는 가족생활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이혼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큰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Chiriboga, 1982). 이같은 중년 남성들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공허함과 외로움, 우울함 등을 경험하며 중년기 발달 위기(Middle-Aged crisis)를 맞게 된다(이부영, 2002). 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로 중년기 남성은 분명한 정체감을 상실한 채 자기개념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장휘숙, 2012). 즉 중

년기라는 발달적 전환기에 이혼을 겪는 남성들 자아정체감의 위기, 심리사회적 어려움 등 관계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는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며 강한 실패감과 자기개념의 상실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Amato, 2000; Hetherington, 2000).

남성의 이혼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노정자, 2011; 서진환, 2011; 김미숙, 2012; 임경택, 2015)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분노감과 억눌린 정서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가부장적 구조 하에서 남편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배반당했다는 감정으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최만자, 2002). 또한 이혼 남성은 사회의 왜곡된 인식 및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수반하면서 사회적 위축과 정서적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송현애, 2007). 이처럼 남성은 심리적 측면에서 여성에 비해 더 큰 이혼의 고통을 겪는다(최만자, 2002). 이로 인하여 이혼을 경험한 남성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는 데 스트레스, 외로움, 개인적 실패감, 죄의식, 자기 비난, 분노, 증오심, 방황, 공포, 만성적 두통, 불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시달리게 되고(송현애, 2007), 또한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문제를 유발하여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 한다(김미연, 2012).

이혼이라는 위기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개념(self-concept)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 통제력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자기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 지각으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형성(송인섭, 2013)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높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자기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통제력이 낮다고 인식한다(이희경,

2004). 이러한 통제 인식은 심리적 건강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기개념의 소유자는 자신의 생활 또는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면서 자기실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이효자, 1985)해 나가지만 반대로 부정적 자기개념의 소유자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며 결혼생활에서도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Burnett, 1998). 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중년기 이혼남성은 자신의 상황 통제 인식능력에 따라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더 침체되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정서적인 질이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과 연결되어 있음이 보고된다(김민동, 2002). 하지만 중년기 이혼남성은 가족의 해체로 가족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주므로 부정적 정서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기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년기 이혼남성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남성들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는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최효진, 2010). 이를 고려할 때 미술치료를 통한 접근은 보다 편안한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Winnicott, 2000)함으로써 방어가 심한 남성 내담자에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심리적 갈등을 미술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술치료는 자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아성장을 높일 수 있으며 부정적 자기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스스로 유일하고 중요한 존재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아존중감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정익현, 2001).

미술치료에서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자기개념 중심의 미술치료가 초기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self)를 형성해 나가는데 효과적이며, 부모의 이혼과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자기상 탐색을 중심으로 자기개념을 안정적으로 발달시켰으며 자기개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보고된 바 있다(조숙현, 2007; 신혜진, 2016; 강옥자, 2016). 그리고 자기개념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향상과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었고, 집단 미술치료 체험을 통한 여중생의 자기개념이 증진되었음도 입증되었다(백경희, 2005; 이지현, 2014). 이와 같이 자기개념과 관련된 미술치료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혼남성에 관한 미술치료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혼여성에 관한 미술치료 연구만이 몇 편 보고되어 미술치료가 이혼여성들의 이혼 후 겪는 갈등상황에서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어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제시된 바 있다(정은선, 2006; 조규영, 2010; 김설희, 2011). 자기개념을 위한 미술치료는 성인에 비해 주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상담현장에 찾아오는 대상이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여성들인 반면 이혼 남성들은 고정된 성역할로 인해 자신의 내적인 경험을 인식하면서도 침묵한 채,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견디고 참아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모윤수, 2015). 이같이 남성들이 상담현장에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 기존 국내문헌을 통해 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술치료 개입을 통해 상담 장면에서 그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위기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통한 사례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례연구는 보편적인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특정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로부터의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윤주 외, 2014)이 있으며

로 중년기 이혼남성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1. 연구참여자

이에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기 이혼남성을 대상으로 단일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자기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의 권유로 상담현장에 자발적으로 의뢰한 남성 내담자이다. 이에 연구자가 개별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진행절차, 상담의 효과성 등을 설명한 후

표 1. 연구참여자 사례개념화

구분	연구참여자 사례개념화
연구참여자 특징	본 연구의 참여자(40대)는 1남 2녀 중 장남으로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님과 살고 있음. 2004년대 초에 결혼을 하고 결혼 5년정도 후 이혼하였음. 현재 초등학교생인 자녀들은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관계가 좋지 않아 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임. 참여자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을 보였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설계를 전공하여 지금은 전공과는 상관없는 화물기사를 하고 있음. 참여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잊기 위해 매체에만 중독되어 생활하다 보니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함.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 깊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기보다는 술 한 잔 하거나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회피하며 힘든 상황들을 기억에서 지운다고 함. 참여자는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힘든 상황들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인의 애정과 관심에 강한 욕구가 있지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관찰됨.
가족관계	부(60대 후반): 참여자가 중학교 때 인사사고를 크게 내면서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종교에 빠지게 되었고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던 아버지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제외하고 돈을 모두 종교단체에 갖다 바침. 하루 4시간만 주무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시지만 오로지 종교 얘기만 하시고 일반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함. 모(60대 초반): 종교에 빠진 아버지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였고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들로 인해 크고 작은 수술을 하면서 버텨고 있음. 몸이 아무리 아파도 계속 움직이면서 강박적인 청소, 정리를 통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한다고 함. 큰 여동생(3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하여 꾸준히 출산하였지만 그 중 쌍둥이는 안타깝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망하였음. 지금은 관절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함. 둘째 여동생은(30대 후반): 20대 초반에 출가하였고 여동생들 모두 부모님 집 근처에 살고 있으며 참여자와 사이가 좋아서 한 달에 두어 번 이상씩 만남을 가진다고 함.
발달사	참여자는 어릴 때부터 밝고 활발하였으며 반장만 할 정도로 리더십도 있었고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함. 하지만 중학교 때 아버지의 인사사고로 인해 조금씩 위축되었고 결정적으로 고2 때 아버지와 종교적인 다툼으로 심한 상처를 받으면서 대화 없이 지내게 되었음. 이렇게 부자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제대로 된 아버지상을 보지 못하고 자람에 따라 자신을 정신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아버지 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을 표현함. 그리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일하시면서 이모, 삼촌들까지 챙기느라 너무 바빴음. 자신을 열심히 챙겨주는 했지만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참여자는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짐. 현재까지도 애착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면 헤어지거나 버림받을 것이라는 왜곡된 인지로 감정을 계속 억압시키고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원인별 주 호소문제

구분	주호소 문제
가족	참여자는 어릴 때부터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지만 중학교 때 부의 인사사고로 인해 집안이 힘들어지면서 조금씩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갔으며, 결정적으로 고2 때 부와의 다툼으로 심한 상처를 겪으며 부와의 대화가 단절됨. 이렇게 가족과의 소통에 문제를 보이면서 집안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고 점차 자신의 감정에 둔화되기 시작함.
사회	참여자는 부와의 갈등으로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되면서 오히려 친구들과 더 깊은 애정을 나누게 됨. 이에 이십 대 때 의형제를 맺었던 친구들과 사업까지 하게 되었지만 결국 친구들의 배신으로 사업이 끝이 나자 처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심한 좌절을 경험함. 그리고 삼십 대에 다시 한번 직장생활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좌전된 말들로 인해 또 한 번의 상처를 겪으며 타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되었음.
결혼	참여자는 가족과 사회에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습관들이 배우자 선택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함. 이런 미성숙한 부분이 결혼생활에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현재 이혼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구 참여에의 동의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상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시간변동이 많아 회기 간격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주 2회, 90분씩 22회기 진행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의 관찰 및 사전 면담을 기초로 심층 분석한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년기 이혼남성의 자기개념이 미술 치료를 통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과정이 자기개념의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하는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사례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할 때,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례가 갖는 의미를 얻고자 할 때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상 즉 어떠한 현상의 변화과정을 볼 때 적절한 연구형태이다(Yin, R. K., 2013). 사례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례를 탐색하고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원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기

술과 주제를 보고한다(Creswell, 2015). 따라서 사례연구는 맥락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생생하고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호응되어 구체적인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특징이 있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또한 독자의 경험을 연구에 대입하여 해석함으로써 단순한 사례의 이해나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일반적인 형태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유기웅 외, 2018).

이에 사례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례에 대한 심층적 기술과 분석을 전개하고, 자료 수집은 미술 치료 회기를 진행하여 매 회기 녹음 및 전사한 축어록, 슈퍼비전 자료, 연구자의 관찰일지, 참여자의 감정노트, 미술작업 및 작품사진 자료, 사전사후 면담자료 등을 수집하여 질적 분석하였고 더불어 측정도구를 이용한 양적분석을 혼합하여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자기개념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는 다양한 전문서적, 기사 등을 참고하고 주관적인 해석과 분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지도교수와 미술치료를 전공한 전문 미술치료사 2인에게 슈퍼비전을 받아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 보완하였고 전체 상담회기를 초기, 중기, 후기 세 단계로 분류하여 자기개념 변화를 도출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내용이 연구자의 학위논문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미술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기호화하여 기록하였다. 매 회기 녹음된 자료와 미술작품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가 동의할 시 연구를 목적으로 보관할 것이다. 파기를 요청할 경우는 연구 종료 후 영구 폐기될 것임을 알렸다. 참여자는 연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위 내용에 대해 참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얻은 뒤 위 내용을 포함한 미술치료 연구 동의서에 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4. 미술치료

본 연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적은 자기탐색과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기통합을 이루어 자기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5. 연구도구

1) 성신자기개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이혼 남성의 심리사회적 갈등이 정서와 자기상에도 영향을 주면서 대인관계에까지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자기개념 형성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성신자기개념 검사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성신자기개념검사의 사전 사후 변화를 통해 하위 요인이 연구대상자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신자기개념(self-concept) 검사는 김정규(1999)가 Deusinger(1986)의 '프랑크푸르트 자기개념 검사'와 Battle(1992)의 '문화 영향이 없는 자존감 척도 (Culture Free Self 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제작한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총 86문항으로 자기존중감(self-esteem : 19 문항), 정서안정감(emotional stability : 16문항),

표 3.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단계	목표	내용
초기 단계	관계형성 정서이완 내면탐색	자유로운 표현과 대화를 통해 연구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바탕으로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진행하며 자기개방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감정을 파악한다.
중기 단계	자기탐색 자기 및 타인인식 감정발산	내면탐색을 통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부정적 감정, 분노 등을 표출시켜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후기 단계	관계인식 자기 및 타인수용 자기통합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며 자신의 긍정적 내적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자신의 문제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합된 자기상을 인식하게 하여 온전한 '나'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며 성장해나가도록 한다.

표 4.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분	목표	주제	내용 및 기대효과	
사전 면담	관계 형성	사전 검사	치료사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그림검사를 통해 나의 감정, 욕 구, 무의식 탐색	
초기	1	진저맨	내 안의 나를 내적, 신체적으로 표현해보으로써 나의 내면을 탐색해보고 나를 소개함	
	2	자유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면서 내면에 숨겨진 감정들을 인식	
	3	나의 나무	치료사가 나무에 관한 시를 들려주면 그 느낌을 담아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무 이름에 맞는 이미지를 표현해보며 나무가 상징하는 것들 탐색	
	4			
중기	5	동굴화	마음을 이완시킨 후 숲속 동굴 안에 자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며 나의 내면 탐색	
	6	손 본뜨기	(자아상 탐색Ⅰ)석고봉대를 이용하여 손 본뜨기를 통해 나의 신체상에 대해 생각해 보며 나의 또 다른 자아에 대해 탐색	
	7	가면 만들기	(자아상 탐색Ⅱ)여러 종류의 종이가면 중 마음에 드는 가면을 선택하여 또 다른 나 의 모습을 표현	
	8	자화상	(자아상 탐색Ⅲ)거울을 보며 나의 얼굴을 표현해보면서 그동안 만들었던 손석고, 가 면과 함께 나의 자아상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기 인식 시작	
	9	자기 탐색	감정 표정	다양한 감정표정의 얼굴을 보고 최근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회노에라의 다양한 감 정들이 있음을 인식
	10	자기 및 타인 인식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타인 인식Ⅰ)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를 비교해보며 자신에 대한 인식 을 확장하며 타인인식 시작
	11	관계 안에서의 나		(타인 인식Ⅱ)사람과의 관계맺음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타인과의 관계 확장에 의 한 자기 인식
	12	생활 속의 나		(타인 인식Ⅲ)일상에서 관계 맺는 것들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해보며 타인과의 관계 에서 생활 속의 '나' 인식 확장
후기	13	도깨비	(나의 숨겨진 감정Ⅰ)나의 억눌린 숨겨진 감정들을 탐색해보고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감정 인식	
	14 15	불새	(나의 숨겨진 감정Ⅱ)나의 부정적 감정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자신의 숨겨 져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며 억눌린 욕구 분출	
	16	불새를 타고 다니는 나	(나의 숨겨진 감정Ⅲ)불새를 타고 다니는 “나”를 표현하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나의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며 심리적 안정감 형성	
	17	추억 만나기	(과거)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 본 뒤 회상하며 가장 행복했을때와 지금의 나를 연관시켜 탐색	
	18	관계 인식	현재 가장 소중한 것	(현재)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보며 과거의 좋은 기억들과 연 관시켜 탐색
	19	자기 및 타인 수용	문밖으로의 세상	(소통)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탐색하며 문밖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표현해보며 긍정적 관계탐색 및 조망
	20	나의 심리적 에너지	(나의 자원Ⅰ)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및 가보고 싶은 곳을 표현해보며 심리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나의 자원 탐색	
	21	자기 통합	내 안의 힘	(나의 자원Ⅱ)나의 긍정적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며 긍정적 자기상 확립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인식
	22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 움으로써 자기를 수용하고 통합	
	사후 면담		사후검사	사후검사 및 치료과정 회고와 안전한 종결 맺기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relationship: 16문항),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17문항), 대인신뢰감(interpersonal trust: 18문항)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형식은 '아주 그렇다(1점)에서 전혀 아니다(6점)'까지 Likert 방식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는 각 하위척도 점수와 이를 합산한 총 점수로 계산된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86점에서 516점까지이며,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

본 연구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로 정서안정감이 낮아지면서 관계에도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현재 연구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가족구성원간의 역동적 관계가 대상자의 정서안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KFD는 가족구성원 각각의 특징적인 행동과 성격뿐만 아니라 기능적이고 능동적인 단위로서의 상호작용 요인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정현희, 최외선, 2004). 또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힘의 분포, 친밀감 및 단절감과 같은 가족 내 역동성을 그림을 통해 엿볼 수 있게 한다(신민섭, 2003). 동적가족화가 지향하는 바는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투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 또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까지 탐색할 수 있다.

3)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DAS)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이혼남성의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술치료를 통해 정서와 자기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ilver(1988b, 2002)가 개발한 이야기 그림검사(DAS)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DAS검사는 Silver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사정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하거나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 또는 언어적 표현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DAS는 물리적, 표면적 특징보다 이야기의 내용을 중요시하며 주관적 감정으로 그려지는 그림과 이야기의 내용이 척도의 점수에 의해 사정될 수 있다. 평가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며, 하위요소로 정서내용(emotional content)척도, 자기상(self-image)척도, 유머사용(use of humor)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주리애, 2004).

결 과

1. 자기개념 사전·사후 양적 결과분석

오랫동안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억압으로 감정표출이 힘들었던 참여자에게 정서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기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대인신뢰감 모두 향상되었지만 대인관계능력은 점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참여자가 오랜

표 5. 성신자기개념 사전·사후 검사 결과

	자기존중감	정서안정감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신뢰감	총점
사전검사	68	53	62	64	60	307
사후검사	80	64	63	75	75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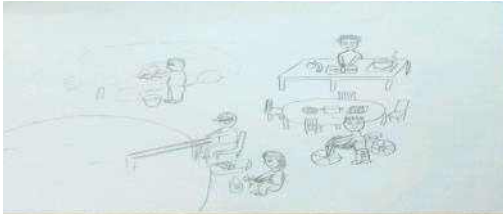
시간 친밀한 유대감 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인간 관계를 맺어 오면서 사회성 및 대인관계능력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인신뢰감이 가장 높게 향상된 결과를 보았을 때 타인을 신뢰하는 마음이 조

금씩 생겨남에 따라 보다 친밀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림검사 사전·사후 질적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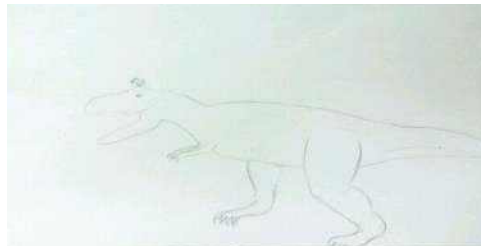
1) 동적 가족화(KFD)

표 6. KFD 그림 검사 사전 사후 비교

	사전	사후
그림		
내용	참여자는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겨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함. 왼쪽 윗부분에 제일 먼저 아버지를 그리고 그 밑에 자신을 다시 오른쪽 윗부분에 어머니를 그리고 나서 아들, 딸 순서대로 그림. 가족과 함께 놀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상상해보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함. 아버지는 항상 세차를 하시니까 차를 닦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은 기분 좋게 낚시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함. 아들은 항상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해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그렸고 딸은 인형을 좋아하니까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그렸다고 함.	사후검사에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함. 가장 먼저 중앙에 대상자를 그리고 크게 하트를 그렸으며 아버지, 어머니, 여자친구 순으로 그림을 그림. 아버지는 십자가를 하트 안으로 넣고 있으며 어머니는 맛있는 밥상을, 여자친구는 사랑을 하트 안으로 붙여넣는 모습을 표현함. 이에 참여자는 너무나 즐겁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웃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자신 주변으로 빛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강조함.
종합 분석	사전검사 때 아버지, 어머니, 대상자 모두 각자 일을 하며 구체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하트를 통해 모두 하나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참여자는 작품활동을 할 때 얼굴 표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웃고 있다고는 하지만 화난 표정을 그리거나 아예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모두 환하게 웃는 표정을 그림으로써 정서 표현이 좋아지고 타인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음. 또한 자신을 정중앙에 그림으로써 자신감과 함께 긍정적 자아상이 형성됨을 추측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정서안정감과 자기존중감, 대인신뢰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짐.	

2) 그림이야기 검사(DAS)

표 7. DAS 그림 검사 사전 사후 비교

사전			사후			
그림						
이야기 내용	[제목: 낙하산을 펴라] 레저스포츠를 즐기면서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데 바다 위 외딴섬 안에 성이 보여 호기심이 생겨 일행들한테 내려달라고 함. 그리고 낙하산을 타고 일부로 성으로 낙하함. 성으로 낙하한 후 성을 구경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어서 구조요청을 함. 그러나 비행기는 못 온다고 하고 배는 올 수 있다고 해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낚시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음. 다행히 생각보다 배가 빨리 와서 섬에서 탈출할 수 있었음.		[제목: 노을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과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병아리가 너무나 사이좋게 놀고 있음 공룡은 아주 무섭고 강한 존재이지만 병아리랑 놀 때는 최대한 공격성을 줄이고 부드럽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병아리는 공룡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명령도 하고 깔깔깔 거리면서 웃고 있음.			
점수	정서내용	자아상	유머사용	정서내용	자아상	유머사용
	3.5점	4점	4점	5점	5점	5점
종합 분석	사전검사에서는 혼자 고립된 모습을 나타내며 흥분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우울함을 표현하면서 양가감정을 보임. 사후검사에서는 혼자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제목도 [노을자]로 표현하며 매우 안정된 정서를 보여줌. 또한 아주 약한 존재이지만 강자와 당당히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관계 속에서 어울리며 자아가 조금씩 성장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정서, 자아상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미술 치료 회기 및 분석결과

본 연구는 총 22회기의 미술치료를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자기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 성신자기개념의 구성요소인 자기존중감, 정서안정감, 대인신뢰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 요약하였다.

표 8-1. 미술치료 단계별 분석내용-초기 변화과정

초기단계 (1~4회기) 관계형성 정서이완 내면탐색				
	1회기: 내 안의 나	2회기: 나의 바람	3회기: 휘굽나무 I	4회기: 휘굽 나무 II
자기존중감	기본적인 구조화가 되었을 때 경직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표현과 생각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회피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에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음. 특히, 1, 2 회기에서 자신의 내면을 이미지로 표현하게 하자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회기부터는 조금씩 자기탐색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 감정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함. 이는 3회기에서 자신의 나무를 [휘굽나무]라고 제목을 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식처를 주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휘어지고 굽어진다는 뜻의 제목에서 느껴지듯 자신을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표현하며 이미지화된 작품과 언어적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전체적으로 참여자는 자기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낮은 자기존중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정서안정감	참여자는 화물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수면이 부족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힘들었음. 이런 생활환경과 심리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회기 과정 내내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쉬고 싶은 욕구를 계속 드러냄. 2회기 [자유화]에서 낚시, 낮잠을 표현하며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였고, 나무 기둥 안에 안식처를 직접 만들어 힘들 때는 그곳에 들어가 쉬고 싶다고 함. 3회기 [휘굽나무]에서는 직접적으로 쓸쓸하고 외롭다는 표현을 하면서 튼튼한 나무에 비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네에 직접 타고 있는 '나'를 묘사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을 드러냄.			
대인신뢰감	참여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과 어울리며 소통하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음. 1회기에서 남자들은 미련하고 한심하다고 표현하면서 사람 표정을 그릴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3회기에서 [휘굽나무]를 만든 것으로 보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8-2. 미술치료 단계별 분석내용-중기 변화과정

				
	5회기: 동굴화	6회기: 손석고	7회기: 나비가면	8회기: 자화상
중기단계 (5~16회기)				
	9회기: 감정표정	10회기: 내가 보는/남이 보는 나	11회기: 관계 안에서의 나	12회기: 생활 속의 나
자기탐색 자기인식 타인인식 감정발산				
	13회기: 도깨비	14~16회기: 내 안의 숨겨진 감정(불새)		
자기존중감	중기단계에서는 5회기 [동굴화]를 통해 내면탐색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자기탐색이 이루어짐. 이 시기에는 전 배우자와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심리적 갈등이 심하였고 이런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작품 속에 표출하면서 자기상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음. 6회기 [손석고]를 할 때 신체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면서“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무 감정이 없다, 더 이상 꾸미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7회기 [가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이중성으로 대비되게 표현하면서 바탕색을 노란색과 빨간색 좌우로 엇갈리게 표현하며 간접적으로 자신을 X로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8회기 [자화상]에서는 자신과 전혀 다른 얼굴을 그렸음. 또한, 10회기 타인인식에서 자신을 힐벗은 모습의 상처투성이로 표현하면서 내가 보는‘나’와 남이 보는 ‘나’를 대조적으로 나타내었고, 11회기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아주 작은 크기로 나타내며 위축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며 낮은 자기존중감을 보여주었음. 그리고 13회기의 주름지고 힘없는 [도깨비]를 자신에 빗대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6회기에서부터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며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불새와 같이 날려 보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시작함.			

중기단계가 시작할 즈음에 참여자는 전배우자와 아이들을 보고 온 뒤라서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감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작품 속에 그대로 표출되었음. 7회기 [가면]에서 자신을 너무나 화려하게 표현했지만 눈물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나타내며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였고 9회기 [감정표정]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끔찍하다, 한심하다, 울고 싶다, 슬프다, 죄책감)들을 모두 쏟아내면서 자신의 정서를 조금씩 알아차리게 됨. 이러한 자기인식을 통해 10회기 [내가 보는 나]에서는 험뎠은 모습으로 세상을 힘겹게 버텨나가는 나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표출함. 11회기 [관계 안에서 나]에서는 울타리를 이중으로 표현함으로써 울타리가 사회 안에서 나를 감싸주는 보호막인 동시에 지금 현실이 나를 너무 숨 막힐 정도로 옥죄이고 있다면서 지금 현실의 힘듦을 계속 강조하였고 12회기 [생활 속의 나]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을 표현하며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분노와 공격성으로 강하게 표출함. 지금까지는 주로 부정적 정서만을 표현하였는데 13회기부터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며 의식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13회기에서 [도깨비]를 강렬한 빨간색으로 색칠하며 자신의 분노감을 공격적으로 표현하였고 15회기에서는 불새를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을 섞어가며 빨간색에서 벗어나 중화된 색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완화되게 표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회기에서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불새를 직접 타고 날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조금씩 안정된 정서를 보여주었음.

중기단계가 시작될 때 전 배우자와 심하게 싸우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어서 이런 정서가 그대로 작품 속에 나타나면서 타인인식에 관한 주제로 작품을 해야 될 때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음. 하지만 그동안의 회기 과정을 통해 자기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11회기 [관계 속의 나]에서 '나'를 표현할 때 타인과 색을 구분지면서 나와 타인은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나타내며 관계 안에서의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다리를 높게 만들고 싶으면서 탈출이 곧 회피가 아닌 자기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줌. 12회기 [생활 속의 나]에서는 타인과 관계맺음을 전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된 일상을 표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더 추가하여 그리고 싶다고 한 것과 검은 색 머리가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의식적으로 파란색 머리로 칠을 하여 밝게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보면 외로움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도 간접적으로 보여줌. 중기가 시작될 때 5회기 [동굴화]에서부터 부정적 정서를 발산하며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표출하였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욕구가 조금씩 해소됨에 따라 타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표 8-3. 미술치료 단계별 분석내용-후기 변화과정

후기단계 (17~22회기)			
관계인식	17회기: 과거의 나	18회기: 현재의 나	19회기: 문밖으로의 세상
자기 및 타인수용			
자기통합	20회기: 내 안의 힘	21회기: 나의 긍정적 자원	22회기: 미래의 나의 모습
자기존중감	불새 작업 이후로 참여자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후기단계에서는 자기상이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 18회기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고 19회기에서는 자신을 새싹과 나무, 새로 표현하며 다시 새롭게 성장하여 높이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냄. 그리고 이제는 예전같이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변화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동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회피에서 직면을 통한 적극적인 자기상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밖을 안경 너머로 바라봄으로써 나만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제한을 둔 것을 보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는 세상의 연결고리 안에 자신도 속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면서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자아를 나타냄. 그리고 20, 21회기에서 자신의 긍정적 자원들을 아주 큰 꽃과 천사, 날개로 표현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에서 한층 가벼워진 마음을 표현함.		
정서안정감	20회기에서 편안한 안식처로 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힘들 때 이 안에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꽃이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품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함. 또한, 21, 22회기에서 자신과 타인 모두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하고 경직될 때 사람 표정을 그리지 않거나 화난 표정을 그릴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냄.		
대인신뢰감	스스로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 연결고리 안’에 자신도 소속되어 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21회기에서는 14명의 타인들 모두의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자신과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들을 수용하며 함께 어울려가는 모습을 마지막 22회기에서 보여줌.		

논 의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혼위기극복과 적응을 돕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중년기 이혼남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혼 과정에서 겪는 억압된 부정적 정서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출시키게 되면 이혼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적인 감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년기 이혼남성의 억압된 부정적 정서를 표출시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을 통한 긍정적 자기개념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년기 이혼남성의 자기개념 변화에 대한 미술치료 단일 사례연구로 성신자기개념검사의 구성요소인 자기존중감, 정서안정감, 대인신뢰감 척도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념 중심의 미술치료는 중년기 이혼남성에게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고 수용하게 함으로써 낮은 자기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년기 이혼남성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창의적 미술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성취감을 경험하였으며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재인식하면서 긍정적 자아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성신자기개념검사에서 자기존중감은 사전 68점에서 사후 80점으로 12점 증가량을 보여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참여자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며 자율성과 성취감

을 경험하였고 연구자와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조금씩 자기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갈등적인 심리상태 등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며 긍정적인 자기상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후기단계에서는 자신의 긍정적 내적자원으로 아주 큰 꽃과 천사, 날개를 표현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에서 한층 가벼워진 마음을 보여주었고, KFD 사후검사에서는 자신을 정중앙에 환하게 빛이 나게 그림으로써 자아상이 아주 크고 강하게 변화됨을 나타내었다. 참여자는 오랜 시간 억압된 부정적 정서로 인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창조적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탐색과 자기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자신과 사회적 관계, 목표, 역할 등에 있어서 자기이해가 가능하였으며 자기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자기개념 중심의 미술치료는 중년기 이혼남성에게 자기실현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치료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내면의 억압된 부정적 정서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중년기 이혼남성은 자신이 수용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였고 정서안정감이 향상되었다.

성신자기개념검사에서 정서안정감은 사전 53점에서 사후 64점으로 11점 증가량을 보여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참여자는 회기초기에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며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수용 받는 과정을 통해 억압된 정서를 조금씩 표출하였다. 이에 단계적으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표출시킴으로써 간접적인 해소를 경험하며 분노에 대한 내적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후기단계에서는 자신의 편안한 인식처인 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안정된 정서를 보여주었다. DAS 그림검사에서도 사전검사에서는 혼자 고립되고 쓸쓸한 모

습을 보였지만 사후검사에서 공룡과 병아리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KFD에서도 가족들이 응집된 모습으로 하나로

연결되며 행복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미술치료가 정서안정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자기존중감의 변화

자기존중감의 변화	
그림	
분석	참여자는 자화상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의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부정적 자기상을 그대로 표출하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였음. 하지만 조금씩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며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불새와 같이 날려 보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 표정을 환하게 그림. 또한, 자신의 긍정적 자원들을 아주 큰 꽃과 천사, 날개로 표현하면서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음.

표 10. 정서안정성의 변화

정서안정성의 변화	
그림	
분석	참여자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끔찍하다, 한심하다, 울고 싶다, 죄책감)들을 모두 쏟아내면서 자신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정서를 조금씩 알아차리게 됨. 그리고 단계적인 분노 표현(도깨비)을 통해 간접적인 욕구 해소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편안한 안식처로 꽃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힘들 때 이 안에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꽃이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품 안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 안정된 정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표 11. 대인신뢰감의 변화

대인신뢰감의 변화

그림



참여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표현할 때 타인과 색을 구분 지으며 나와 타인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며 철저히 고립된 삶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종결 회기에서는 타인과 어울리는 모습을 나타냄. 그리고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상적 자아에 대한 욕구와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을 표현하면서 나와 타인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셋째, 자기개념 중심의 미술치료는 중년기 이혼남성의 자기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 타인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 타인인식으로의 변화를 도와주어 대인신뢰감이 향상되었다.

성신자기개념검사에서 대인신뢰감은 사전 60점에서 사후 75점으로 15점 증가하며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가장 큰 증가량을 보여주었다. 대상자는 회기초기에는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철저히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미술치료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타인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나타내었다. KFD 사후그림검사에서도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하트로 연결하며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상적 자아에 대한 욕구와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을 표현하면서 나와 타인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치료 활동이 자신의 억압된 부정적 정서를 건강하게 표출시켜 자

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분노에 대한 내적통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줌으로써 불안한 정서에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연구자의 안아주는 환경을 통해 수용받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이상적인 타인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미술치료가 중년기 이혼남성의 자기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가 중년기 이혼남성의 개인미술치료 사례연구로 이혼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자료가 되어 임상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와 전 배우자와의 갈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고 참여자의 원가족 간의 가정적 문제로 인한 가족치료가 요구되었음에도 다양한 가정적 핵심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현실적 제한점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서 한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분석과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의도성과 주관적 해석이 지적될 수 있기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기 이혼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년기 이혼남성의 심리적인 건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이 상담현장에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 이므로 다양한 개입방법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옥자 (2016). **미술매체를 통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2005). 한국의 이혼 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
- 김미숙 (2012). **이혼가정 남성의 부성경험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연 (2012). **집단미술치료가 만성정신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동 (2002).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일반청소년 집단과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설화 (201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모자보호시설 이혼여성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규 (1999). **성신자기개념검사**. 한국가이던스.
- 노정자 (2011).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모운수 (2015).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희 (200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개념과 학교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진환 (2011). **크리스천 남성의 이혼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인섭 (2013). **자아개념**. 서울: 학지사.
- 송현애 (2007). 한 부모 가정의 부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생활과학지**, 16(1), 1-15.
- 신민섭 (2003).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신혜진 (2016). **부모 이혼과정에서 아동의 자기개념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파주: 한길사.
- 이윤주, 문명현, 송영희, 김미연, 김예주, 김여흠, 지연정 (2014). **알기 쉬운 상담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지현 (2014). **집단미술치료 체험을 통한 여중생의 자기개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효자 (1985). **시각 및 청각장애아의 불안특성 및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2004). **나무그림검사와 자기개념검사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택 (2015). **이혼남성의 자녀 양육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옥분 (2008).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은선 (2006). **가정폭력 피해성의 이혼 후 심리적 적응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익현 (2001). **결혼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외선 (2004). **동적가족화와 심리진단**. 대구: 중문출판사.
- 조규영 (2010). **이혼여성이상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만다라 미술치료 사례연구: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숙현 (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미술치료사례연구: 위니콧의 자기개념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리에(2004). Silver의 Draw-a-Story검사의 개관. **심리치료**, 4(2), 119-131.
- 최만자 (2002). 이혼가정이 늘고 있다. 새로운 삶의 날개달기: 이후의 새 삶을 향하여. **기독교 사상**, 46(5).
- 최효진 (2010). **중년 남성들의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관계: 자기은폐,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Berk(2009). **생애발달 :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And ed)]**.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운경, 김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7년 출판).
- Burnett, P. C.(1998). Measuring behavioral indicators of self-esteem in the class room.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 development*, 37(2), 107-117.
- Chiriboga, D. A(1982). Adaptation to marital separation in later and earli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7, 109-114.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3년 출판).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2000). *Parenting in divorced and remarried families*. NJ: Erlbaum.
- Lenvinger, G. (1979). *Separation and Divorce*. Moles, O. C. (Eds). New York: Basic Book.
- Silver, R.(2007). **세 가지 그림 심리검사[Three Art Assessments]**. (이근매, 조용태, 최외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2년 출판).
- Winnicott, D. W. (2000).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은 1984년 출판).
- Yin, R. K. (2013).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1년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8월 17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09월 18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10월 20일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Self-Concept of a Middle-Aged Divorced Man

Jung, Young-Ju Cho, Mi-Ae

KyungHee University Haenuri Center

This is a case study on art therapy in a middle-aged divorced man who feels psycho-social difficulty due to divorce, and its purpose was to determine how art therapy affected self-concept of a middle-aged divorced man. For this purpose, art therapy was provided to a 40-year-old man who had been divorced for three years in a total of 22 sessions—two sessions a week, 90 minutes per session—from January 30 to April 16, 2017. The Sungshin Self-Concept scale was used to determine the quantitative changes after therapy and the Kinetic Family Drawing (KFD) test and the Draw-a-Story (DAS) test which were performed to see the changes after therapy. The result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omponents of the Sungshin Self-Concept scale: self-esteem, emotional stability, and interpersonal reliability. On the basis of this conclusion, art therapy activity helped him express his repressed negative emotions in a healthy way, have his needs satisfied, and make internal integration against anger, thus making anxious emotions stable. The researcher's hugging environment provided him with receptive experience, so that he could perceive himself positively and have stable and ideal other-awareness. So art therapy positively affected a middle-aged divorced man's self-concept formation, and this case study on personal art therapy in a middle-aged divorced man is expected to give basic data that can be of help in clinical practice for researchers who try to solve psycho-social problems caused by divorce.

keyword : Middle-Aged Divorced Man, Self-Concept, Art Therapy, case study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족상담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및 상담관련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 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회의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제 17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 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와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회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 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학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회지 발간 및 접수) 학회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회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 결과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붙임2>

「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 1차 처리 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이의 신청 최종 처리 방법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편집위원회 게시판 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한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① 1단(심사용)

② 편집용지 :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좁게

④ 문단모양 :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2,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⑤ 마침표 다음 :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⑥ 논문 제목 :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⑦ 저자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 위 20)

⑧ 소속 :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 위 10)

⑨ 초록 :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왼쪽 3, 오른쪽 3) (그 다음에 한 줄 띄우기, 10호)

⑩ 주요어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그 다음에 두 줄 띄우기, 10호)

⑪ 본문 내용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문단 첫 줄은 두 칸 띄우고 시작)

⑫ 본문 제목 1단계(‘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 제목 2단계 : 중고딕 11,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 제목 3단계 : 신명조 10, 보통모양, 양쪽 정렬

⑬ 참고문헌 내용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각 문헌은 4칸 내어 쓰기로 구별(반드시 눈금자 조절)

⑭ 영문초록 : 제목, 저자, 소속, 초록의 내용은 국문 지침과 동일함

⑮ 부록 : 제목은 중고딕 10호, 내용은 신명조 9호

⑯ 표제목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진하게

그림제목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가운데 정렬, 진하게

⑰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중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 ⑱ 표 작성의 줄긋기 :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 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 줄만 사용, 가장 바깥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⑲ 쪽수 표시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제정한 연구진실성 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회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회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인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기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 의견의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 논문은 120-150 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어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ville Ha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3인 이상 5인이하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첫 인용에는 모두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예 1) 천성문, 함경애와 조용재(2015)는...첫 인용

천성문 등(2009)은...반복 인용

15. 참고문헌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5ed.) 양식을 따른다.

(1) 단행본의 경우 :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어빈 알롬 (2005). **치료의 선물**. 서울: 시그마프레스.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응. **상담학연구**, 10(2), 1217-1228.

(3) 학위논문의 경우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5)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14-229.

(6)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 (2001).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2001. 9. 23. 19면.

(7)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http://www.kacfc.or.kr>

-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 ...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e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 ③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장세정(2019. 2. 19). 무료 심리지원센터 전국 3곳뿐.

<http://mnews.joins.com/article/23381159?cloc=joongang> 중앙일보에서 2019. 4. 4. 인출.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H.(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 ③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

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ers, Carl. R. (1980/2007).].

Rogers, Carl.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는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0년 출판)

-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 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 대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 기관 명 순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E.(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Hobbe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Adelmann, P.K.(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Deci, E.L., & Ryan, R.M.(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Byun, S.Y., & Kim, K.K.(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timore, USA.

-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E.(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 ⑨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National wage data.(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6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작·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회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익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익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익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율을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회원가입

※ 제공하신 정보는 회원 지원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1. 본인 확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2.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자택 주소, E-mail 주소
3. 회원의 전문성 확인 이용: 학위 관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며 삭제요청시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실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하여 주시고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및 활동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절차

- (1)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kacfc.or.kr]
- (2) 학회 회원가입 입회비와 가입비 납부 [입금방법: 성명+생년월일 기재]
- (3) 확인 후 회원승인

■ 회원 가입 자격 요건

- (1) 본 학회 창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준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2) 학회 평생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의 평생회원 가입 신청서를 안내드립니다.

■ 회비 및 계좌번호

구분		입회비	연회비
전문회원	부부·가족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 또는 한국가족상담협회 수련감독자격 유지자	2만원	5만원
정회원	부부·가족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 또는 한국가족상담협회 1급 자격 유지자	2만원	3만원
준회원	부부·가족상담 관련 학사학위 소지	2만원	2만원

※ 처음 가입 하시는 분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회원승인 처리가 됩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231401-04-287068,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 문의처

학회 사무국: E-mail: kacfc2019@gmail.com , TEL: 070-7475-3957